2015년 제2호 통권 63호

KW-Leadership, SE-Fu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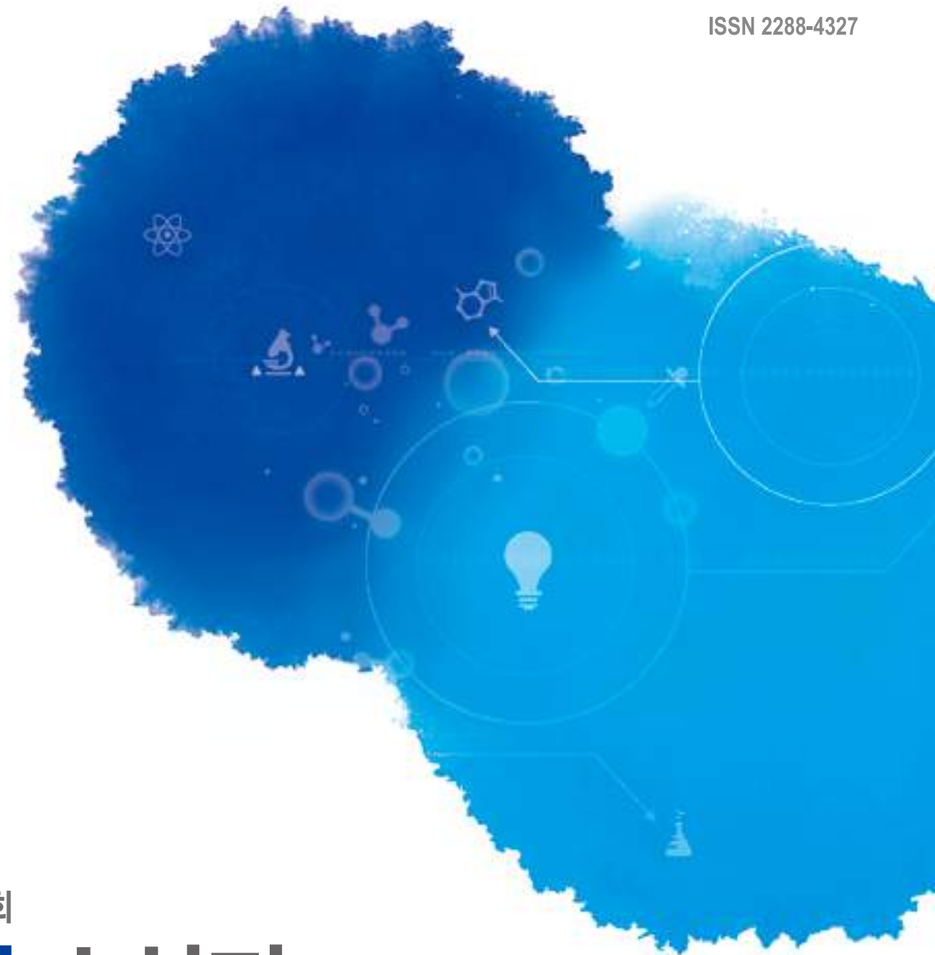
(Korean Women's Leadership in Science & Engineering and Future)

여성 리더십이 만드는 과학기술과 미래

KWSE
The Association of Korean Women Scientists & Engineers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The Association of
Korean Women Scientists and Engineers

305-338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KAIST 부설 나노종합기술원 E19 806호
Tel. 042-863-8310~2
Fax. 042-863-8313
E-mail. kwse@kwse.or.kr
www.kwse.or.kr

ISSN 2288-4327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KWSE 소식지

The Association of
Korean
Woman
Scientists and
Engineers

KWSE 2015 JULY

CONTENTS

03 • **격려사** / 산업통상자원부 윤상직 장관
04 • **인사말**
05 • **수상소감**
10 • **인물탐방시리즈** / 미래창조과학부 한형주 과장
14 • **기관소개 I**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16 • **기관소개 II** / DGIST
19 • **2015 YWS Camp & Smart Sister Program 총괄워크숍**
20 • **세계과학정상회의**
22 • **세계과학기자대회 성과홍보**
24 •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표준지침 소개**
28 • **현장르포:** 직장어린이집
33 • **과학탐구교실**
36 • **KIRD 교육과정 소개**
40 • **과학외교**
44 • **과학융합아카데미**
46 • **KWSE News**
50 • **회원동정**

발행인 한성옥
편집위원장 김혜영
편집위원 김신애, 박선희, 주성진, 한미정, 김희연, 안서현, 최미화, 최은정, 황지수
홍보팀 최한나, 오여경, 한태윤, 이빛나, 명선하
발행처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주소: 305-338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KAIST 부설 나노종합기술원 E19 806호
전화: 042-863-8310~2 팩스: 042-863-8313
E-mail: kwse@kwse.or.kr 홈페이지: www.kwse.or.kr
디자인 주식회사 시우컴퍼니 www.siwoocom.kr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 상 직

안녕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입니다.

신록의 푸름이 짙어가는 7월에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소식지를 통해 인사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그간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에서 여성과학기술인의 근무여건 개선과 복지증진에 힘써 주신 점을 지면을 빌어 감사드립니다.

과학기술 연구분야는 부가가치가 높고, 시간적·공간적으로 융통성을 발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 산업현장에서 고급 연구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여성연구원들의 적극적인 진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산업현장의 여성연구원이 2012년 35,000여 명 수준에서 지난해 43,000여 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정부도 미래 여성인재 10만 명 양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선, 여성연구원이 육아부담을 줄이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테크노파크, 산업단지 등 기업연구소 밀집지역에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에서도 이러한 필요성을 일찍이 깨닫고 대덕 연구단지내에 사이언스 신성어린이집을 지어 연구개발특구 내 여성연구원 확산에 크게 기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 인재들이 실제 산업 현장의 자동화된 공장을 직접 보고 체험하면서 이공계·공학 부문 진출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부터 K-Girls' Day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과거 중후한 대형 장비들로 구성된 막연한 공장의 이미지를 버리고 여성연구원들이 산업현장 진출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러한 정부와 현재 여성과학기술인들의 노력이 합쳐진다면 머지않아 여성연구원 10만명 시대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시길 바라며 산업통상자원부도 여성과학기술인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제10대 회장
한 성 옥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10대 회장 한성옥입니다.

신록이 아름다운 여름입니다. 회원 여러분 모두에게 먼저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으로 제 인사말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올해 「2015 과학의 날 정보통신인의 날」에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의 많은 회원들이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 자신의 연구 분야에서의 우수한 업적뿐만 아니라 열정적인 활동과 봉사로 수상하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또한, 따뜻하고 정성어린 마음으로 묵묵히 나눔을 행하시는 소중한 우리 회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난 4월에 발생한 대지진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네팔을 돕기 위한 성금 모금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하여 주었습니다. 네팔은 아시아·태평양 여성과학기술인 네트워크인 APNN 회원국일 뿐만 아니라 우리회가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 여성과학기술인들과의 네트워크를 위해 2012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Smart Sister Program에 많은 네팔 여성과학기술인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 회원들은 초·중·고교를 직접 찾아가 학생들에게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알리고 흥미를 유발하는 등 과학기술 저변 확대를 위해 봉사와 함께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는 성차별 해소와 남녀노소 국적불문 누구나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활동을 지원하는 한국여성재단의 대표적인 나눔 캠페인 '100인 기부릴레이'에 매년 이끔이로 나눔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점차 우리 회원들은 나눔의 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또한, 다양한 형태로 사회에 나눔의 미학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저는 회원 여러분의 나눔과 배려에 큰 자부심을 느끼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 우리 회의 가장 큰 행사로 10월에는 「2015 Young Woman Scientists Camp (YWS Camp) & Smart Sister Program 총괄워크숍」이 세계과학정상회의와 연계되어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번 총괄워크숍은 'YES (Young Women Engineers and Scientists), we are the future of Asia!' 라는 주제로 외국 및 주한 외국인 여성과학기술인과 국내 여성과학기술인과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상호 발전적 교류를 확대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과학외교, 다양한 나눔 활동 등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과학기술 기반의 지속가능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우리 여성과학기술인들의 역할과 활동은 점차 중요성을 더하고 영역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사랑과 나눔의 마음이 풍성한 여성과학기술인들의 계속적인 활발한 활약을 통해서 따뜻하고 함께하는 세상이 보다 빨리 다가올 수 있으리라 기대해 봅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생활에 많은 행운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이사장
김 명 자

2015 과학기술진흥유공자 훈장 (창조장)

이 나이에 훈장을 받으니 쑥스럽다. 기관 추천서류 제출도 미적거리다가 마지막 날 보냈다. 과학기술계에서 여성이 보이지 않는 현상을 극복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과학의 날' 국립과천과학관 중앙홀에서 열린 무대에 맨 먼저 올라 과학기술훈장 창조장(1등급) 어깨띠도 둘렀고 훈장도 달았다.

그 다음날 해프닝이 벌어졌다. 한 줄로 늘어선 수상자 신문 사진에서 2인의 남성 수훈자와 달리 내 것만 작았다! 어깨띠 폭도 좁았다. 여성신문 인터넷판에 이 사건(?)이 보도됐다.

1967년 제정된 정부 상훈법 시행령에 "여성은 체구가 작아 남성보다 크기가 작은 훈장을 수여하도록 돼 있다"한다. 남성은 106그램, 여성은 57그램. 이런 황당한 배려가 웬 말이냐는 반응에 조선일보도 '정부 훈장에도 남녀 차별'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결과는 해피엔딩이다. 행정자치부가 성 차별적 요소가 담긴 상훈제도를 올해 하반기에 개정하고, 특히 여성용 1급 훈장을 남성용과 같이 바꾼다고 한다. 그 덕에 "훈장의 성 차별 개선 기록을 추가하게 된 데 것까지 합쳐 축하한다."는 언론계의 메시지도 받았다. "빠른 시일 내에 남녀 동일 규격의 훈장을 받는 후배가 나와야 할 텐데..."라고 답했다. 한편 언론계의 따가운 지적에 쩔쩔맸을 공무원에게 미안한 생각도 든다.

창조장 수훈으로 인터뷰도 했다. 과분한 평가지만 "45년간 교수, 최장수 여성장관, 국회 국방의원으로서 특유의 열정과 성실함, 강력한 추진력으로 '합리성과 감성의 거버넌스 리더십'이란 신조어를 낳은 그가 대한민국과학기술상 진흥상 대통령상(1994년)과 청조근정훈장(2004년)에 이어 또다시 1등급 훈장의 영예를 안게 됐다"고 했다. 그리고 진흥상 대통령상을 최초로 받은 여성과학자는 대학여성과학기술인회를 창립한 오세화 선배였다.

공직도 뭣도 다 내려놓고 봉사하는 삶이 이토록 뿌듯할 줄은 몰랐다. 돌아보면 평생을 일벌레로 살았고 과학으로 훈련됐지만 인문적인 소양 탓에 오늘의 나로 사는 것 같다.

과학기술의 사회적 영향에 주목하고 여성이자 과학자의 시각에서 해법을 찾다 보니 에너지 정책(특히 원자력), 환경복지, 인터넷 문화, 여성인력 등에 초점을 맞추게 됐다. 요새는 호스피스 제도화의 전도사가 됐다.

몇 년 전부터 내건 슬로건은 '소통과 융합, 과학외교'다. 목표는 '과학으로 여는 행복한 세상'이다. 과학기술의 성과 확산에 여성과학기술계가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새 우물을 파고 있다. 젠더혁신(Gendered Innovations)은 지식의 생산, 응용과 성과확산에서 통합적 시각으로 신작로를 여는 길이다.

이 모든 활동을 관통하는 스피릿은 협력과 화합이다.
그 자체가 새로운 에너지의 원천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한국화학연구원
책임연구원
이 종 교

2015 과학기술진흥유공자 훈장 (진보장)

연구원에 입소한 이래 바이러스연구만 수행할 수 있었던 점에서 나름 행운아라고 생각을 해왔으나, 이번 수상은 전혀 예기치 못했습니다. 사회 초년생 시절 뇌리에 박힌 직업관이 도와준 것 같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연구직 공무원으로서 국립연구원에 근무한 처음 1년 동안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은 전문직 여성으로서 직장에서 정년까지 버티기 위해서는 아무리 미움을 받아도 '저 여자'가 아니면 할 수 없다는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잠시라도 방심하면, 정년 하루 전에라도 불명예 퇴진할 수 있다는 인식이었습니다. 제가 한국화학연구원에 입소했을 때는 제 또래의 여성동료들이 몇 분 있었고 현재는 젊은 여성동료들의 수는 더욱 늘었습니다만, 아직도 이 말을 후배들에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연구수행을 위해서는 연구인력, 시설과 장비 및 연구비가 필요한데 이 중에 무엇인가 부족할 때는 장기 전략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출연연의 공통문제인 연구인력 부족이 제게는 가장 큰 문제였기에 부족한 연구인력으로도 경쟁력과 공공성이라는 명분을 얻기 위해 감염성 있는 바이러스를 증식시켜 수행하는 연구 분야를 지속했습니다. 이는 생물안전 세포실험실과 동물실험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20년 이상 관리해 주신 시설팀과 바이러스시험연구센터 동료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여성으로서 선구자 역할을 해주신 오세화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호남대학교
교수
백 란

2015 과학기술진흥유공자 훈장 (진보장)

제48회 '과학의 날'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진흥유공자 훈장을 받도록 추천해주신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KWSE)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개인적으로는 20년 일한 강단에서의 가장 의미 있는 최고의 열매이며, 저와 함께 호흡한 학생들에게는 도전적 미래를 제시하는 스승으로 설 수 있는 교육의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2003년부터 KWSE와 함께 해온 과정을 더듬어보니, 훌륭한 선배님들, 뛰어난 후배님들을 만나게 된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행운이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배려하고, 희생봉사를 아끼지 않으시는 회장님들과 임원단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수고가 있었기에 제가 광주전남지부에서의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최고의 과학자들의 초청강연으로 진행되었던 '인문학 만남과 융합워크숍', 융합의 전문가들로부터 학생들에게 교육을 제공한 '인문학과 만남을 통한 융합 캠프', 2003년부터 전국적으로 과학기술앰버서더로서 과학교사들, IT영재 학생들, 과학고등학생들에게 과학기술의 미래를 제시할 수 있었던 행복한 시간들, 초·중·고등학생들에게 과학의 미래세상으로 함께 다가갔던 시간들이 더욱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특히 '인문학 만남과 융합워크숍'에서 차세대여성과학기술인들과의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젊은 KWSE 회원들이 도전적으로 연구 역량을 발휘하는 지혜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KWSE의 역할에 한 모델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진행하였던 '여성과학자의 효율적인 기초연구사업 참여 방안 도출을 위한 기획연구'는 KWSE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으며, 이 모든 성과는 서로를 배려하고 격려하는 KWSE의 문화였기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광주전남지역에 다양한 행사와 과학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애써주신 KWSE 광주전남지부 회원들께도 이 자리를 통해 감사드립니다. 또한 모든 행사마다 달려와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후원을 해주신 민병주 회장님(8대), 신용현 회장님(9대), 항상 긍정의 시너지로 모든 일들을 가능하도록 이끌어주시는 한성옥 회장님(10대)께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KWSE 모든 회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담아 글을 올립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책임연구원
주 성 진

2015 과학기술진흥유공자 포장 (과학기술포장)

앞 다투어 피어나는 꽃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벅차오르는 계절인데, 큰 수상의 영예까지 안고 나니 2015년 4월을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니 시간이 참 빠르게도 흘러갔습니다. '국방 분야 최초의 여성 연구원'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온 지도 어느덧 2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남성의 전유물이라 여겨졌던 '국방 연구개발' 분야에서 고군분투하며 어려움도 많았지만, 현재 많은 여성연구원들이 부족한 저를 계기로 용기를 얻고 국방 분야에 진출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을 보면 기쁘고 흐뭇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제 연구원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목표는 국방과학연구소의 일원으로 전장에서 유효한 무기체계를 개발하여 자주국방에 기여토록 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여성과학기술인들의 성장을 위해 미약한 힘이나마 보태야한다는 사명감 또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를 통해 여러 활동에 참여해왔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분발하여 훌륭하신 선배님들과 함께 여성과학기술인들의 활동을 돕고 후배님들에게는 작은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상의 영광을 주신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및 모든 선·후배, 동료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두 늘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포스텍
교수
이 영 숙

2015 과학기술진흥유공자 대통령표창

이번에 대통령표창을 받고 수상소감까지 쓰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저는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KWSE) 활동에 적극 참여하지 못해 늘 죄송한 마음입니다. 포항이라는 오지에서 사는 이유도 있고, 제가 워낙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하다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KWSE에서 활동하시는 여러 선생님들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들이 남에게, 특히 남자에게, 양보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교육받은 분들도 상당히 있는데 KWSE가 여러 활동을 통해 여성과학기술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후배 여성과학기술인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일이 참으로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여성들이 가진 능력을 십분 발휘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아이들도 행복하고 나라도 더 잘 될 것입니다.

우리 여성과학기술인들이 서로 도와가며 각자의 연구도 충실하게 하고 후배를 이끄는 일에도 동참하여 우리 나라와 지구촌의 장래를 밝히는 여성과학기술인들로 더 크게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
김 숙 경

2015 과학기술진흥유공자 대통령표창

여러 면에서 부족한 저를 제48회 과학의 날을 기념하여 과학기술 부문 대통령표창에 추천해 주신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KWSE)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과학의 날이 제정된 해에 태어나서 같은 나이인 것은 우연일까 운명일까 생각해봅니다. 약학대학을 졸업하고 석 박사 과정을 거치며 여성과학자로서의 큰 포부를 키웠으나 일 가정 양립, 취업과 연구의 과정에서 힘든 시간도 많았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연구자로서의 기반이 생긴 후에 KWSE의 회원이 되어 활발히 활동하시는 선배, 동료, 후배님들을 보면서 저도 더욱 힘이 났습니다. 특히,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정광화 전 원장님과 신용현 현 원장님의 KWSE에 대한 사랑과 여성과학기술인들을 위한 여러 활동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많은 배움을 얻었습니다.

최근에는 한성옥 회장님과 함께 이사로 활동하면서 KWSE의 발전과 우리 여성과학기술인들의 미래를 위해 미력이나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고 공감하고 배려하는 여성의 특성과 합리적이고 공정하고 깨끗한 리더의 덕목을 갖춘 많은 선배, 동료들과 함께 하면서 닮고 싶고 배우고 싶어졌습니다. KWSE는 여성과학자들이 서로 이끌어주고 힘이 되어주는 든든한 존재라는 점을 후배들에게 많이 알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여성과학자, 자랑스러운 딸, 아내, 엄마가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다시 한 번 저에게 영광스러운 수상의 기회를 주신 한성옥 회장님과 KWSE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책임연구원
김 경 자

2015 과학기술진흥유공자 국무총리표창

제48회 과학의 날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추천으로 과학기술진흥유공자 국무총리표창을 받았습니다. 저는 여성과학기술인으로서 우리나라에서 미개척 단계에 있는 행성탐사 분야의 과학 장비 개발 및 연구를 수행했으며, 미국과 일본의 달 및 행성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해 달 탐사 연구기반을 마련하였고, 다수의 특허등록 및 국제저널에 논문등재, 인력양성, 산학연협력연구 및 국제협력 학술활동으로 관련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본인은 우리나라의 달 탐사 프로그램에 과학자로서 참여할 것을 기대해보며 향후 인력양성 등 달 및 행성 탐사 관련 분야에 여성과학기술인의 참여를 격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국무총리표창을 추천해 주신 과학계 여러분들에 감사를 표의하며, 우리나라 여성과학기술인의 긍지와 사명을 가지고 향후 관련 연구와 교육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저는 그동안 여성과학자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해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KWSE)의 활동에 참여해왔으나 본인의 활동은 비교적 저조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여러 활동에 적극 참여해 KWSE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2015년 과학기술진흥유공자 장관표창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곽 지 혜

"한 일에 비해 큰 상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과학문화 확산과 양질의 교류를 위해 더욱 노력하라는 의미로 알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영남대학교
교수
김 정 애

"미래창조과학부 장관표창 수상이 가능했던 것은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추천하여 주신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고 격려하여 주시는 상으로 받고 혼신의 힘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한국화학연구원
선임연구원
김 향 숙

"2015년도 과학의 날, 화학연의 27년간 근무하면서 출연연의 '기술마케팅 및 기술사업화 촉진'에 기여함을 인정받아 장관표창을 수상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책임연구원
신 용 주

"제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표창 수상이 가능했던 것은 여러 선배님과 후배님, 그리고 동료들의 협력 및 배려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가R&D의 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하라고 격려하여 주시는 것으로 알고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책임연구원
안 인 성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를 통한 많은 격려와 관심 덕분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표창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 노력하는 여성과학기술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선임연구원
이 화 심

"좋은 상을 받게 되어 기쁘고 하나님께 그리고 같이 일한 동료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축하해 주시고 늘 힘이 되어주시는 KWSE에 감사합니다."

한국세라믹기술원
팀장
임 형 미

"과학기술진흥을 위해 일하고 있는 여성과학자들을 대표해서 받은 표창장이라 생각되어 먼저 KWSE 회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가족과 동료 연구원들 덕분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농업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연구사
장 재 경

"부족한 제가 과분한 상을 받게 되어 어깨가 무거워지며, 미생물연료전지를 이용한 가축분뇨의 에너지화 연구가 실용화 가능한 기술로 실현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15. 05. 08 인터뷰

미래창조과학부의 업무 수행을 통해서 통일한국의 비전을 꿈꾸는

한형주 과장

KWSE 2015 JULY
인물탐방시리즈

따사로운 햇살이 아름다운 5월 초,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연구제도정보과 한형주 과장을 만났다. 중학생 딸을 둔 엄마이며 아내로서 가정과 일을 병행하고 있는 한형주 과장의 환한 웃음으로 인터뷰가 시작되었다.

Q. 먼저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회원들에게 간단한 인사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미래창조과학부 연구제도정보과장 한형주입니다. 저도 여성이기에 평소 여성과학기술인들께 관심이 많았는데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소식지를 통해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고, 또 부족한 사람을 찾아 주셔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Q. 지난 3월 미래부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면서 연구제도과에서 연구제도정보과로 개편되었는데 연구제도정보과에 대한 소개와 정보라는 타이틀이 추가되면서 어떠한 점이 개편되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올해 3월 미래부 조직개편 시 성과평가국이 평가혁신국으로 개편되면서 기존의 성과평가정책과, 연구성과확산과, 연구제도과가 성과평가정책과, 성과평가지원과, 연구제도정보과로 재정비되었습니다. 그 개편방향은 국가 R&D에 대한 평가 전담부서를 2개로 확대하면서 평가정책을 대폭 강화하고자 한 것과 연구제도과에 정보업무를 추가하면서 우리가 보통 NTIS라고 지칭하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기능을 연구제도와 좀 더 긴밀히 연계시켜 R&D제도 개선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한편으로는 NTIS 서비스를 더욱 고도화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Q. 개편되기 전 연구제도과의 주요업무는 연구개발 관리제도 개선 및 운영을 통해 연구자들이 창의성을 마음껏 발휘하여 연구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었는데 개편된 연구제도정보과에서 이를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계신 업무는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연구제도정보과에서는 연구현장에서 '공동관리규정'이라고 알고 계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통해서 연구개발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R&D를 수행하는 각 부·처·청에서 훈령, 예규, 고시 등의 내부 지침을 통해 사업의 특성에 따라 R&D 관련 하위규정을 조금씩 다르게 운영하다 보니, 현장에서는 공동관리규정 외에 부처별·사업별 운영규정에 대해서 별도로 비교·숙지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을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 보고·확정하여 각 부처 세부규정들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자들께서 연구과제를 신청하고 수행하는 중에 가장 혼란스러운 것이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식과 관련 서류가 사업별로 상이한 것이라는 현장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연구수행과정에서 연구자(수요자)가 사업관리자(공급자)에게 제출하는 '연구개발 수행·관리 서식'을 연구수행 단계별로 통일하여 연구자 입장에서의 서식 표준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NTIS 시스템과 연구재단·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전문기관 간 연계를 통해 추진하는 '범부처 과제신청 원스톱서비스'를 작년에 3개 기관에서 올해는 10개 전문기관과의 연계로 확대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Q. 연구제도정보과라는 특성상 연구자들의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고 선구적인 연구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조성에 대한 정책적인 방안이 있으신지요?

A. 제도 개선을 통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크게 2가지의 방향성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연구현장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자율성을 강화하여 연구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러한 자율성 확대에 상응하여 연구기관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자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성실실패 인정제도의 정착, 서식 표준화 등 각 부처에서 운영하는 연구제도를 공동관리규정 중심으로 표준화하는 것과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와 '우수 연구기관 인증제'를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로 통합하는 것과 같은 규제완화 차원의 간소화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구기관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서는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의 확대, 연구비 관리시스템의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기관 자체적으로 연구관리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자율적·사전적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R&D 관련 교육을 활성화하는 것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미래부에서는 연구하기 좋은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기 위해 연구자분들의 아이디어를 항시 구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R&D 도우미센터(www.rndcall.go.kr)」내에 온라인 'R&D 신문고'와 1800-7109(친한연구)로 연락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Q. 연구제도정보과의 향후 계획으로서 앞으로의 목표 혹은 비전에 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연구제도과가 NTIS 업무도 수행하는 연구제도정보과로 확대된 조건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합니다. 제도개선 내용이 규정 개정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NTIS에 반영되어 실질적인 제도개선의 효과를 담보하고, NTIS의 정보시스템 기반을 활용하여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모색하는 등의 제도와 정보가 서로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도록 할 예정입니다. 예컨대, 서식 표준화 내용을 NTIS를 활용하여 범부처적으로 확대시키고, 기업 등 연구기관별 맞춤형 정보서비스 제공을 활성화하거나 NTIS 정보의 개방·공유·협력을 통한 평가지원 시스템 구축 등 새로운 방식의 정책지원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제도정보과의 구체적인 업무 분야 외에 제가 업무에 대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비전이 있습니다. 연구제도정보과장으로서의 업무 수행이 통일한국을 이루는데 조금이나마 역할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조금 생뚱맞게 들리시지요? 저는 때때로 자문합니다. 내가 왜, 무엇을 위하여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당연히 연구제도 개선을 통해 효율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그에 따라 연구자들이 창의적인 성과를 냄으로써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게 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그 경제성장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다시 한 번 할 때, 단순히 우리 국민이 잘 살게 되고, 복지 수준이 높아지고, 세계적인 위상이 올라간다는 것만으로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통일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는 또 하나의 가시적인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목적이 더해질 때, 지금 이 자리에서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동기부여가 됩니다. 연구제도정보과 직원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더니, 너무 비약적이고 좀 황당하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대체로 공감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부서가 한 팀이 되어 뭔가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기에 우리 부서원들이 같은 사명감과 지향점을 가지고 늘 새로운 마음으로 일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품은 생각들을 부서원들과 공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Q. 현재까지 오랜 기간 공무원으로 근무하시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과 어려웠던 일은 무엇이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A. 그동안 거쳤던 모든 부서에서 각각의 보람과 고충은 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4년에 교육부에서 과학기술부(혁신본부)로 옮겨 일을 시작할 때,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업무를 했던 것이 그 이후의 과학기술 정책 업무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업무에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나오는 범부처적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과 실적의 관리, 채용목표제 등 적극적 조치의 시행, 관련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태조사를 통한 통계 작성·관리, 협회나 단체 지원, 각종 여성과학기술인 지원 사업과 제도의 총괄 등 모든 형태의 행정업무가 종합세트처럼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채용목표제의 출연연 기관별 목표치를 기관 특성에 따라 개별적으로 설정했던 것과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설계·실시하여 통계기반을 구축한 것, 과기부·교육부·산업부의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사업을 공동으로 모색했던 것이 특히 생각이 납니다. 사무관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기에 벅찼지만 당시 전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를 이끌고 계시던 이화여자대학교 전길자 교수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큰 어려움 없이 해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유아교육과장을 할 때, 보건복지부와 함께 통합 유아교육·보육과정인'누리과정'을 계획·발표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저도 일하는 엄마로서 자녀양육을 전적으로 친정어머니께 의존하는 입장이었기에, 교과부와 복지부가 대승적 차원에서 협력하여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정책화했다는 데 대해 보람이 컸습니다. 유아교육과장을 했던 경험은 2013년에 국립서울과학관장을 할 때 과학관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국립서울과학관은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과학관이기는 하지만, 대전에 있는 국립중앙과학관이나 과천에 있는 국립과천과학관에 비해 규모도 매우 작고, 시설도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작고 소박한 과학관이기에 유아 및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과학체험에는 적합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과 함께 국립어린이과학관으로서 특화시키는 꿈을 키우며 전시품을 기획하고 개발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의 꿈이 헛되지 않았는지, 서울과학관은 올해 여름부터 리모델링을 시작하여 2017년에 최초의 국립어린이과학관으로 새롭게 문을 열 계획이라고 합니다.

Q. 최근 많은 워킹맘들의 가장 큰 고민은 일과 가정을 균형 있게 병행하는 것인데요, 아이를 키우며 직장을 다니는 여성으로서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KWSE) 회원들에게 조언해 주실 말씀이나 공유할 말씀이 있는지요?

A. 솔직히 말씀드려 제가 조언할 자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친정어머니의 전적인 희생과 도움으로 육아로 인한 큰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으니까요. 지혜롭게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며 살기 보다는 남성들과 똑같이 직장을 우선시하고 일에 몰입하며 살아 왔습니다. 그런데, 딸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엄마가 아닌 훈육자의 역할에만 충실해 왔다는 것을 우연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대학에서 교직 이수를 위해 교육학도 공부해 봤고, 교육부 공무원으로 교육정책도 담당해 봤고, 더구나 유아교육과장이라는 직도 수행했던 저로서는 제가 나름 좋은 엄마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당연히 좋은 엄마가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커가면서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보다 제 욕심이 더 커져서 아이에게 '갑'으로서의 권력을 행사하는 저를 깨닫고는 비로소 제가 아직 엄마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고, 아이한테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성공의 조건으로 '1만 시간의 법칙'을 얘기하는데, 진정한 엄마가 되는 데에도 아이에게 온전히 투자하는 1만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그 시간이 한참 미달이었던 것이지요. 다행히 딸이 사춘기를 맞기 전에 2년간 둘이서만 함께 생활할 기회가 있었기에 아이에게 집중할 시간을 보충할 수 있었습니다. 이 보충의 시간 중에 이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고요. 아이가 어렸을 때 많은 시간을 하지 못해 너무나 아쉽지만, 앞으로 그 아쉬움을 채울 수 있도록 아이와 가능한 많은 시간을 보내려 합니다. 여전히 직장 일과 가정사의 병행으로 인해 시간도 부족하고 육체적·정신적 에너지가 방전되는 순간도 경험하지만 특별한 해답은 아직 못 찾았습니다. 그저 해 내야하는 역할에 순간마다 집중하는 것으로 이 시간들을 견뎌내려고 합니다.

Q. 미래를 이끌어갈 여성과학기술인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응원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요즘 젊은 여성과학기술인들은 워낙 똑똑하고 스스로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세대이기에 부족한 제가 특별한 응원을 해드릴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가끔 딸아이에게 해주는 얘기로 대신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선뜻 시작하기가 싫고 두려운 일이 있을 때, 자신이 없어서 시작하기도 전에 포기하고 싶을 때, '시작하면 끝난다'라고 생각하고 일단 첫 발을 내딛으라고요. 흔히 '시작이 반이다'라는 속담으로 게으름이나 시작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나라고 조언하는데,

제게는 남은 반도 부담이 돼서 시작하기가 싫더군요. 그래서 저는 '시작하면 끝난다'라고 생각하고 일의 발동을 걸곤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끝날 거라고 되뇌며 '그냥 계속'하다보면, 그 일이 재미있어지고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보면 정말 끝이 보이고요. 여성으로서 과학기술을 통해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기로 작정하신 이상, 여러분의 그 꿈을 향한 첫 발을 우선 내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에 집중하시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느 샌가 여러분이 꿈꾸던 세상이 현실이 되어 있고, 그 안에서 한층 성장해 있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실 거예요.

지금까지 두서없는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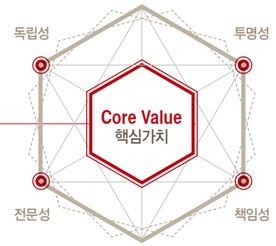
미래창조과학부
미주아시아협력담당관
한 형 주 담당관

한형주 담당관은 연세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1998년 제41회 행정고시에 합격하면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수료하고 영국 버밍엄 대학에서 과학기술정책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한형주 담당관은 교육부, 과기부, 교과부 등 다양한 부처에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3년부터 2년간 국립서울과학관장을 맡았다. 인터뷰 당시 연구제도정보과 과장이었던 한형주 담당관은 지난 6월 8일부터 미주아시아협력담당관으로 자리를 옮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KINS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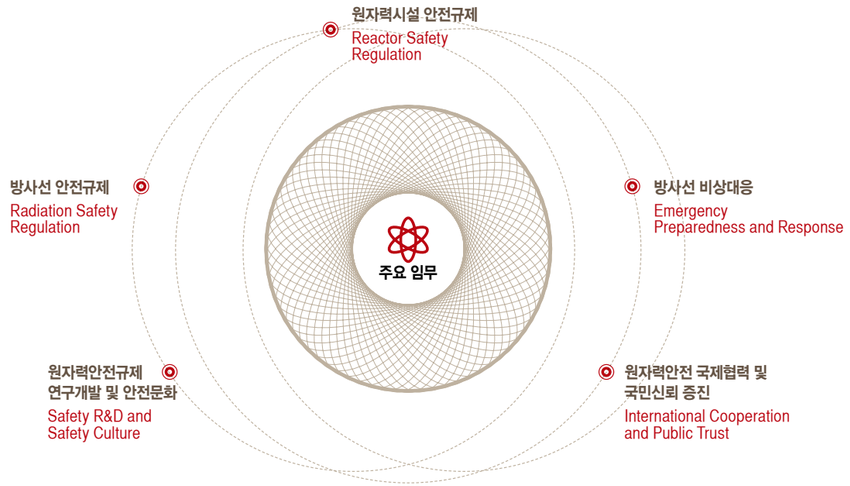
국민에게 신뢰받는 안전 최우선의 KINS

KINS is a Cornerstone for a Safe Korea.
안전한 대한민국은 KINS로부터 시작됩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원자력과 방사선을 이용하고 있는 기관, 시설, 종사자 및 환경 등에 대해 안전을 확인하고 감시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국내 유일의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규제 전문기관이다.

KINS는 원자력발전소, 연구용 및 교육용 원자로, 핵연료생산시설, 방사성폐기물처리 및 처분시설, 방사성동위원소와 방사선이용시설, 생활주변방사선 등에 대한 안전 심사와 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안전규제 연구와 안전기준 개발을 하고 있다. 또한, 전 국토에 대한 환경방사능감시망을 운영하며, 국내 방사선비상은 물론 인접국의 방사능사고, 핵실험, 핵테러 등의 불시적인 상황에도 즉각적인 방어와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다. KINS는 독립성, 투명성, 전문성, 책임성을 바탕으로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규제에 대한 국민 신뢰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안전 최우선 가치의 존중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이다. 국민이 동감할 수 있는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것을 입증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절대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KINS는 국민의 안전이 우리의 궁극적인 존재의 이유임을 인식하여 모든 규제결정에 있어서 국민의 편에 서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규제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규제윤리의 신뢰성 확보

규제전문기관은 누구 앞에서도 바르고 당당한 얼굴로 서야한다. 신뢰 받는 규제전문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독립성, 투명성, 소통이 생명이다. KINS는 모든 이해관계자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고, 투명한 정보공개와 적극적인 소통 활동을 통해 안전규제의 신뢰 구축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안전규제 3.0 실현

안전규제는 기기안전성이나 운영결과만을 중시하는 '목적 지향적 안전'에서 철학, 이념, 조직, 사람, 문화, 의사결정까지 중시하는 '과정 중심적 안전'으로 진화되고 있다. KINS는 과정 중심적인 규제가치를 존중하여 안전한 선진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앞장설 것이다.

신뢰의 메신저 KINS

인류의 미래 번영은 보다 안전한 에너지로 약속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울려 함께 살아가는 세상, 그 아름다운 공생을 위해 KINS가 대한민국의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망을 촘촘히 만들고 있다. KINS는 안전에 안전을 더 두르는 세계 최상의 규제기술로 국민과 소통하는 신뢰의 메신저로 거듭날 것이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
Daegu Gyeongbuk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DGIST의 융복합 시너지가 만드는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새로운 미래

세계 초일류 융복합 연구중심대학!

D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는 21세기 키워드인 융복합(Convergence)을 중심으로 우수한 이공계 인재를 육성하고, 첨단과학 및 산업 분야 연구를 통해 '세계 초일류 융복합 연구중심대학'으로 도약하고 있는 과학기술특성화 대학이다.

DGIST는 2004년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출범한 후 2011년 대학원 석·박사 과정, 2014년 학부과정을 개설해 교육과 연구 기능이 공존하고 있다. 교육 측면에서는 첨단과학 기술 혁신을 선도할 지식창조형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연구 측면에서는 지식기반 사업과 첨단과학 분야 연구를 바탕으로 미래 융복합 기술을 창출해 지역과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무학과 단일학부 체제를 운영 중인 학부과정과 전통적인 학과가 아닌 MIREBraiN으로 대표되는 융복합 대학원 전공을 출범해 창의(Creativity), 기여(Contribution), 배려(Care)의 3C를 갖춘 이공계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 기계, 에너지 등 첨단산업 분야의 연구 노하우가 축적된 융합연구원을 중심으로 2개 연구부서 및 6개 연구특화센터에서 활발히 연구 중이며, 연구 결과를 기술로 출자해 9개의 연구소기업을 출범하며 창조경제 구현의 선봉장으로 도약하고 있다.

KWSE 2015 JULY
기관소개 II / DGIST

융복합 이공계 인력 양성

혁신적인 학부 및 대학원 과정 운영을 통한 이공계 교육 선도

DGIST는 국내 최초로 학부과정 4년에 무학과 단일학부 체제를 도입했다. 21세기 기초가 튼튼한 융복합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학부과정에 전공을 없애고 기초과학 및 공학 교육을 비롯해 비교역사학과 동·서양 철학, 1인 1악기, 태권도 등 인문사회 교육을 실행하고 있다. 내실 있는 학부교육을 위해 학부교육 전담교수제를 운영하고 있는 점도 눈에 띈다. 연구중심대학을 표방하는 대다수의 대학에서는 논문으로 대표되는 교수의 연구 성과와 실적에 치중하다 보니 학부생 교육에 소홀한 점이 있다. 하지만, DGIST는 학부교육 전담교수들이 멘토-멘티를 맺어 학생들의 학업에서부터 진로, 생활전반에 대해 조언하고 있으며 1대 1 클리닉 프로그램을 통해 보충 학습도 실시해 학생 및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다. DGIST는 융복합 교육의 실현을 위해 세계 최초로 융복합 전자교재(e-book)도 개발했다. 학부교육 전담교수들이 직접 집필한 전자교재는 PDF 파일 수준이 아닌 국제 규격 E-pub 3.0에 맞는 형식으로 단백질 구조와 같은 입체적인 구조물을 3D 동영상으로 구현하고, 최신 과학기술 정보를 수시로 업데이트 할 수 있는 교재다.

대학원 석·박사 과정은 전통적인 학과가 아닌 신물질과학(M), 정보통신융합공학(I), 로봇공학(R), 에너지시스템공학(E), 뇌인지과학(B), 뉴바이올로지(N) 등 MIREBraiN 융복합 대학원 전공을 운영 중이다. 현재까지 총 92명의 석사학위 졸업생이 삼성전자, LG전자, 국방과학연구소 등에 취업하거나 국내외 명문대학에 진학해 융복합 교육을 바탕으로 차세대 과학기술 리더로 성장하고 있다.

미래 융복합 기술 창출

융합연구원의 첨단과학기술 연구와 9개 연구소기업 출범

DGIST는 지난 4월 세계를 선도하는 연구 그룹으로 성장하기 위해 기존 4개의 연구부서가 있던 연구본부를 플래그십 연구센터 중심의 융합연구원으로 조직을 개편했다. 지난 11년 동안 축적된 연구 노하우를 바탕으로 IoT·로봇융합연구부, 나노·에너지융합연구부, 태양에너지융합연구센터, 웰니스융합연구센터, LBNL신물질연구센터, 고신뢰CPS연구센터, 마이크로레이저융합연구센터, 미래자동차융합연구센터 등 2개 연구부서 및 6개 연구특화센터에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융합연구원은 자동차, 기계, 에너지, 로봇 등 각 부서 및 센터를 중심으로 대구경북 지역 산업 및 신성장 동력 산업과 연계한 연구를 수행하며 기술이전, 특허 등록 및 출원 등으로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특히, 기술이전 형태를 넘어 융합연구원에서 연구·개발한 기술을 출자해 지난 2년 동안 연구소기업을 총 9개 출범하며 창조경제 구현 및 지역기업의 미래성장 동력 창출에도 앞장서고 있다. DGIST가 출범한 연구소 기업 가운데 그린모빌리티는 전기이륜차 시제품 제작을 완료했고, 일부 핵심부품을 국내 대기업에 판매하는 등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조만간 본격적인 양산에 돌입할 계획이다.

글로벌 네트워킹을 통한 상호 교류

해외 유수 기관과의 교류를 통한 세계적 수월성 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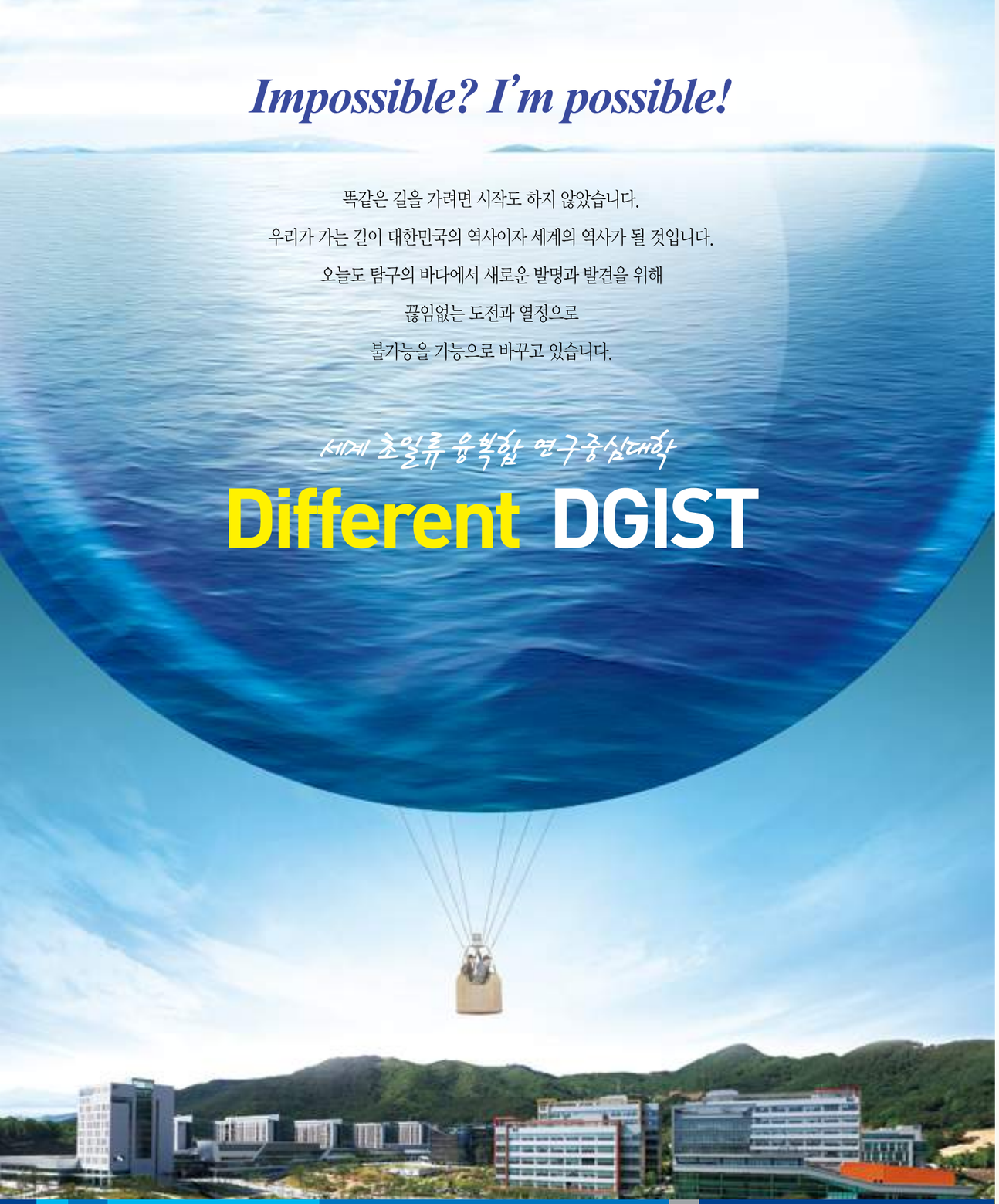
DGIST는 세계적 석학을 초빙해 연구 및 학생지도를 비롯한 국제 협력 증대에도 나서고 있다. 스위스 연방공과대학 쿠르트 뷔트리히 교수를 뉴바이올로지 전공 석좌교수에 임용해 정기적 세미나 및 노벨펠로우십 장학제도를 운영 중이며, 브래들리 넬슨 교수를 겸임교수로 임용해 DGIST-ETH 마이크로로봇연구센터를 구축해 마이크로로봇 분야에서 공동연구를 진행 중이다. 또한, 사이버물리시스템(CPS) 분야를 선도하기 위해 미국 미시건대학, 버지니아대학, 펜실베니아대학, 카네기멜론대학과 함께 CPS글로벌센터를 운영 중이며, 세계적 기초과학 연구기관인 LBNL과 손잡고 나노공정 및 물성측정분야를 연구하고 있다.

Impossible? I'm possible!

똑같은 길을 가려면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대한민국의 역사이자 세계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탐구의 바다에서 새로운 발명과 발견을 위해
끊임없는 도전과 열정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세계 초일류 융복합 연구중심대학

Different DGIST



D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 Daegu Gyeongbuk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세계과학정상회의와 연계한

2015 YWS Camp & Smart Sister Program 총괄워크숍 개최

2015 Young Woman Scientists Camp (YWS Camp) & Smart Sister Program 총괄워크숍이 올 10월 17일(토)에서 19일(월)까지 대전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YES (Young Women Engineers and Scientists), we are the future of Asia!' 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10개국 1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행사는 외국 및 주한 외국인 여성과학기술인과 국내 여성과학기술인과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상호 발전적 교류를 확대하고자 세계과학정상회의와 연계하여 개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60여 개국 과학기술혁신 관련 각계 정상급 인사를 직접 보고 강연을 들으면서 차세대여성과학기술인들에게 과학기술혁신 분야의 국제적 비전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더불어 한국의 활발한 국제협력 교류 활동 소개와 외국과학기술인 참여에 의한 친한(親韓)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우수 여성과학기술인과의 멘토링, 초청강연, 포스터 발표, 연구기관 견학 및 한국문화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 될 계획이다. 또한 APNN 국가 우수여성과학기술인을 초청하여 차세대여성과학기술인과 국내 여성과학기술인과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향후 과학기술 분야 협력 체계 구축과 공동연구 방향에 대해 모색할 예정이다.

YWS Camp는 2012년부터 아시아·태평양지역 차세대여성과학기술인의 글로벌 역량강화와 국제협력증진을 위해 개최하고 있으며, 이번 캠프를 통해 차세대여성과학기술인들이 글로벌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행사개요

- **행 사 명**: 2015 YWS Camp & Smart Sister Program 총괄워크숍
- **기 간**: 2015년 10월 17일 (토) ~ 19일 (월)
- **장 소**: 대전,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UST)
- **주 제**: YES (Young Women Egnineers and Scientists), we are the future of Asia!
- **참 가 규 모**: 10개국 약 100명
- **주요일정(안)**

	17일 (토)	18일 (일)	19일 (월)
오전	-	한국문화 체험	세계과학정상회의 참석
오후	· YWS Camp 개회식 · 초청강연 I, II · 구두발표 및 포스터 발표 · 스마트시스터 프로그램 지역 활동 보고	· 초청강연 III · 분야별 멘토링 · K-POP · 시상식	
저녁	· 환영 만찬	· 만찬 및 여성과학기술인의 밤	-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글로벌 미래창조를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OECD와 공동으로 세계과학정상회의 개최

미래창조과학부는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와 공동으로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글로벌 미래 창조'(Creating Our Common Future through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라는 주제로 세계과학정상회의를 10월 19일(월)부터 23일(금)까지 5일간, 대전 컨벤션센터(DCC)에서 개최한다.

지속가능한 성장,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해 과학기술혁신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현 시점에 향후 10년간의 글로벌 과학기술정책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요 회의임에 따라, 기존 OECD 과학기술장관회의에 세계과학기술포럼, 사이언스 페스티벌 등 다양한 연계행사 등을 함께 구성해 확대 개최하게 되었다.

OECD 과학기술장관회의 52년 만에 최초로 해외국가인 한국에서 개최

OECD 과학기술장관회의는 2004년 이후 세계경제위기 때문에 중단되었다가 한국이 의향서를 제출하여 11년만에 과학도시 대전에서 개최하게 되었다. 1963년부터 개최된 OECD 과학기술장관회의는 그동안 OECD 본부 파리에서 개최되어왔으나 이번 OECD 과학기술장관회의는 52년 만에 최초로 해외국가인 한국에서 개최된다.

특히, 34개국 OECD 회원국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을 포함한 20개국 비회원국 장차관등도 확대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효과적인 과학기술혁신 실현방안(Realising the full potential of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과 '글로벌 사회적 도전 과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 혁신(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for Addressing Grand Challenges)'이라는 주요내용으로 2개의 세션 6개의 분과토의로 진행된다.

세계적인 과학기술 권위자들의 브레인스토밍 현장이 될 세계과학기술포럼

다양한 과학기술분야의 세계적인 석학, 노벨상 수상자, 글로벌 CEO 등이 참여하는 세계과학기술포럼도 개최되는데, 과학기술혁신 시스템, 과학기술과 미래변화,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혁신과 창조경제, 지속가능 동반성장을 위한 과학기술혁신이란 주제로 4개의 트랙 12개의 분임세션과 대중적인 흥미를 유발 할 수 있는 특별세션으로 진행된다. 『엔트로피』, 노동의 종말, 소유의 종말, 수소경제 과학기술의 변화가 경제, 노동, 사회,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활발한 집필 활동으로 유명한 세계적인 석학인 제레미 리프킨을 비롯해서, 적정기술의 선두주자 폴폴락, 누구나 구상한 것을 실제 제품으로 만들어 내 꿈의 공장이라 불리는 테크숍의 설립해서 1인 제조업 시대를 열며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테크숍 CEO 짐뉴튼, 독일 최고의 특허출원 연구소로 유명한 프라운호퍼 협회의 산하 연구소(IWU)를 21년간 성공적으로 이끈 프라운호퍼협회 총재 라이문트 노이게바우어, 3D 프린팅 회사인 SOLS를 성공적으로 창업해 창업멘토로 활발히 활동하며 포브스의 2015년 올해의 '30세 이하 기업인 30인'에 선정되는 등 떠오르는 스타 여성과학자 키간 쇼웬버그 등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사와 국내 연사 등 총 33명이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 문화예술과 과학기술 융합을 통한 혁신, 빅데이터 및 사물 인터넷과 같은 흥미로운 주제로 대중과 만남을 갖는다. 참가비는 무료이다.

세계과학정상회의의 관전 포인트 중의 하나, '창조경제 전파'

글로벌 경제 위기를 극복할 신성장 동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세계 각국은 효과적인 과학기술혁신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과학기술포럼과 OECD 과학기술장관회의의 주제 자체가 창조경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과학기술혁신을 통한 미래창조'로 진행된다. 포럼과 장관회의에서는 한국의 창조경제가 소개되고 창조경제의 성공적 추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과학기술, 정책, 글로벌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각국의 장관 등 통찰력을 가진 과학기술계 인사들과 함께 하는 국제적 논의 속에서 글로벌 과학기술혁신정책뿐 아니라 창조경제 정책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들이 동참하여 과학의 축제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연계행사 마련

과학에 관심 있는 국민들이 모두 참석할 수 있는 '즐기는 과학의 장'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연계행사들도 개최되어 세계과학정상회의를 정부, 과학계, 국민이 함께 하는 행사로 만들 예정이다. 연계행사 중 하나인 '대전 사이언스페스티벌'은 과학도시 대전의 대표적인 축제로서, 기존 행사와는 다르게 차별화된 과학문화와 예술 축제로 개최되고 다양한 과학체험 및 과학과 예술의 만남 등으로 구성된 사이언스 데이도 준비 중에 있다. 또한, 대덕연구단지 20여 개 출연연구기관을 둘러볼 수 있는 투어 외에도 우리의 전통과학기술의 우수성을 알리는 전시회를 기획중이며, 2015년도 AASSA 이사회 및 AASSA 국제심포지움, GRDC 심포지움, 국제미래전략연구 심포지움 등 다양한 학술 행사도 준비가 한창이다. 카이스트의 문화기술대학원 데모데이부터 문화행사를 마련할 예정이고, 2015 YWS Camp & Smart Sister Workshop, 창조특허기술박람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5일 동안 펼쳐진다.

< 세계과학정상회의 일정 및 구성(안) >

10.19 (월)	세계과학기술포럼	개회식			
		기조강연 1: 과학기술혁신이 바꾸는 인류의 미래(제레미리프킨)			
		기조강연 2: TBD(아론시카노바)			
		분임세션			
		Track 1 과학기술 혁신시스템	Track 2 과학기술과 미래변화	Track 3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혁신과 창조경제	Track 4 지속가능 동반성장을 위한 과학기술혁신
		과학기술혁신정책 및 R&D혁신	바이오	과학기술기반혁신 클러스터	기후변화대응 및 환경
		과학기술혁신투자 영향평가	에너지	과학기술과 제조업 혁신	글로벌 공존을 위한 과학기술
		과학교육 인재양성	빅테이터/ 사물인터넷	문화예술과 과학기술융 합을 통한 혁신	글로벌 협력 및 공공복리
10.20 (화)	OECD 과기장관회의	본회의I: 효과적인 과학기술혁신 실현방안 (Realising the full potential of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국가혁신전략	공공투자의 영향력 제고	21세기 과학정책: 오픈사이언스, 빅데이터	
10.21 (수)	OECD 과기장관회의	본회의II: 글로벌 사회적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혁신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for Addressing Grand Challenges)			
		의료분야 과학혁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술개발	포용적 성장을 위한 과학혁신	
10.22 (목)	OECD 과기정책위원회 총회				
10.23 (금)	대한민국 과학발전 대토론회				

WORLD CONFERENCE OF SCIENCE JOURNALISTS 2015

2015 세계과학기자대회

전 세계 과학 기자와 과학 분야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이는 2015 세계과학기자대회가 6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었다.

세계과학기자대회는 글로벌 최대의 과학 언론 분야 컨퍼런스로 세계과학기자연맹과 전차대회에서 선정된 협회의 공동 주최로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행사이다. 이번 2015 세계과학기자대회는 9회 대회로 세계과학기자연맹 설립 이후 최초로 동아시아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에는 전 세계 43개국에서 1,200여 명의 전 세계 의과학 언론인과 연구자들이 참여해 활발한 학술 및 인적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이슈속으로 에볼라 보도의 교훈
세계과학기자대회_개회식

대회 첫 날에는 2001년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인 팀 헌트(Tim Hunt) 교수와 1992년 퓰리처상 집중보도 부문을 수상한 데보라 블룸(Deborah Blum) 위스콘신대 교수가 대중강연을 진행하며 언론 및 과학 분야의 전문가를 비롯해 많은 대중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대회 이틀째인 9일에는 개회식이 시작하기에 앞서 특별 편성된 메르스(MERS) 세션이 진행되어 국내외 언론인의 주목을 받았다. 세션에는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이근화 교수, 서울아산병원 김성한 교수, 대한바이러스학회 일원인 홍기종 박사가 참여했으며, 발표 후 외신 기자들의 열띤 반응으로 질의응답과 토론이 이어졌다.

특별세션에 이어 개최된 개회식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영상을 통해 행사 개최의 축하와 더불어 참가자들의 방한을 환영하였으며,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 마거릿 챈 박사의 영상 축사도 이어졌다. 그리고 '먼나라 이웃나라'의 저자인 이원복 덕성여대 총장이 디지털 시대에 어떻게 대중과 소통할 것인지에 대해 기조연설을 하였다.

기조강연_야마나카 신야
기조강연_댄 페이긴
세션_경청하는 과학기자

한글 이벤트 참여 외국기자
데이터 저널리즘

WORLD CONFERENCE OF SCIENCE JOURNALISTS 2015

2015 세계과학기자대회에는 2명의 노벨상 수상자와 3명의 퓰리처상 수상자 등 과학과 과학언론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참여하여 역대 최고의 강연진을 자랑했다.

개회식에 이어 진행된 첫 번째 기조강연에서는 2012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인 교토대학교 야마나카 신야 교수가 유도만능줄기세포(iPS)의 의학적 활용에 대한 강연으로 참가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10일과 11일에는 BBC 라디오 건강 프로그램 진행자인 런던 시티대학교 코니 세인트루이스 교수와 2014 퓰리처상 논픽션 분야 수상자인 뉴욕대학교 댄 페이긴 교수의 기조강연이 이어졌다.

"서로의 지평을 넓히자"라는 대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된 이번 대회는 과학 저널리즘의 발전과 다양한 문화·지역적 특성을 갖춘 참가자에게 참석 기회를 부여할 목적으로 24개국의 44명을 선발하여 여행 경비와 행사 등록비를 전액 지원하였다. 이는 세계과학기자대회의 주최국으로서 반드시 운영해야 하는 의무사항으로 역대 대회를 통해 전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번 2015 대회에서도 다양한 지역과 문화를 배경으로 대회 참석자에게 더 넓은 세계의 과학 언론과 사례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5 세계과학기자대회는 최고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전 세계 각국의 저명한 언론인 17명이 참여한 프로그램위원회를 구성하여 1년 이상 논의를 거듭해왔다. 특히 대회 기간 동안 총 40개가 진행된 동시세션에서는 △이머징 아시아: 가능성과 갈등 △과학 스토리 전하기 △기술, 사회, 그리고 언론 △과학언론의 다양성과 협력 △과학 △과학·과학언론의 윤리와 진실성 등 여섯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현재 과학언론에서 주요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슈를 다루었다. 이번 대회의 학술 프로그램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평가 받았으며, 다양한 세션에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해 의과학언론계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주제들에 대한 심층적인 토론이 진행되었다.

동시세션과 강연 등 학술적인 세션 이외에도 전시와 투어 등이 제공되어 참여자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했다. 해외 참석자들이 국내 과학연구 및 산업단지와 문화 근거지를 답사할 수 있도록 삼성 이노베이션뮤지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포항공과대학교, 통일전망대, 경복궁 등을 방문하는 다양한 투어 프로그램이 마련되었다.

이번 대회의 성과는 서유럽과 북미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기존의 행사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아시아와 남미, 아프리카 등 신흥 지역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특히 아시아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과, 최근 세계 각 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지진, 감염병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한 전 세계 언론의 협력과 상생을 부각시켰다는 것이며, 이는 세계과학기자대회의 역대 대회로 인해 얻어진 결실 중의 하나로 길이 기억될 것이다.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표준지침 소개

지난 3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국가연구개발의 효율화와 연구 성과의 제고를 위해 연구자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기본 방향으로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습니다.

그동안의 국가연구개발 과제의 평가는 개별 부처별로 수립한 평가지침에 따라 수행되어 관련 연구관리규정이 282개, 근거법률도 97개에 달하며, 사실상 정부R&D사업 400여 개별로 별도의 평가지침이 적용되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별 기준에 따른 다른 지침 적용으로 과제 평가에 대한 연구자 혼란이 심각하였고, 잦은 평가로 인한 연구자 부담 가중, 평가의 전문성·공정성 문제, 양적성과에 치우친 평가로 사업화 저조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으나 이를 개선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문제 인식과 국가연구개발의 평가라는 방법을 통해 국가연구개발의 수준제고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마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본 작업을 진행하는 중에도 몇 가지 분류로 제단 할 수 없는 R&D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하나의 지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어떻게 병행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연구성과물의 개수를 세는 정량평가를 지양하고 성과물의 수준을 측정하는 정성평가를 수행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를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는지? 등 많은 고민이 있었으며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을 발표하고 난 지금에도 많은 문제들이 계속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현재 마련된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은 여러 제약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해결이 필요한 복잡한 평가문제, 평가위원의 수준 문제 등에 대해 보편적 수준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표준지침 주요내용 >>>

1. 기초과학, 인력양성 과제를 제외한 연구과제는 논문 수 지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질적 지표를 50%이상 설정토록 권고

2. 평가위원의 제척기준을 완화하여 연구책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전문가도 필요시 과제평가위원으로 참여 가능하며, 과제평가 전주기(선정평가~추적평가)에 걸쳐 단순 계산식에 따른 정량평가를 지양하고 평가위원의 전문성에 기반을 둔 정성평가 강화

3. 연차평가를 컨설팅 방식의 중간모니터링으로 대체하고 평가보고서 100쪽 이내로 작성토록 간소화

4. 연구개발과제가 처음부터 제대로 기획되고 평가가 심층적으로 될 수 있도록 과제 연구비 책정 시 적정한 기획평가관리비 산정

약 400개의 국가연구개발 개별사업의 평가지침 또는 계획 등은 올해 3월부터 단계적으로 본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에 따라 개정되어 나갈 것입니다. 미흡하나마 이번 노력이 국가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연구자와 국가 모두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KWSE 2015 JULY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표준지침 소개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

기본방향	• 사업의 성과목표와 연계된 과제 목표 설정 • 전문가 정성평가 확대 • 평가의 전문성 강화 • 연구자의 평가부담 완화 및 자율성·책임성 제고 • 연구개발과제 기획평가관리비의 적정 확보
SCI논문 수 등 양적지표 지양 질적지표 사용 확대	· 논문 수 지표는 원칙적으로 폐지 (단, 기초과학 또는 인력양성 과제는 제외) · 질적 지표를 전체 지표의 50% 이상으로 설정('17년까지) 권고
전문가 판단에 따른 정성평가 중심 과제평가 실시	· 연구개발 과제평가 전주기(선정평가 ~ 추적평가)에 걸쳐 단순 계산식에 따른 정량평가를 지양하고 정성평가 중심으로 평가 결과 도출 · 연구초기에 설정한 성과목표가 연구수행의 상한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연구목표 초과달성' 또는 '도전적 목표달성'의 경우 다음 선정평가 시 우대
평가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고려 평가위원 선정 및 평가절차 운영	· 평가위원 제척기준 완화*, 산업계위원 및 국외전문가 평가참여 확대, NTIS를 통해 풍부한 평가위원 풀 공유 등 평가위원의 전문성 제고 *과제특성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위촉가능: ① 사제관계, ② 같은 기관에 소속된 전문가 · 온라인 평가 등 다양한 평가방식 도입, 충분한 기획·평가시간* 제공, 대형과제 평가는 관련 전문가 집단(학회, 협회 등) 의견수렴 등으로 평가절차의 전문성 제고 *RFP의 사전공시를 의무화하고 대면평가 시 중소형 과제는 과제당 1시간 이상, 대형과제는 2시간 이상 할당 권고. 단, 평가과제 수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연구자 평가부담 완화 및 자율성·책임성 강화	· 과제특성에 따라 연차평가를 컨설팅* 방식의 중간모니터링으로 대체하고 단계평가 시기는 연구일정을 고려해 연구자가 직접 제시 *연구자가 신청할 경우 전문가 컨설팅 실시 · NTIS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는 연구자에게 별도 요구 없이 NTIS 정보를 직접 활용 *① 연구자 기본정보 ② 과제수행 이력 ③ 선정평가 감점 항목 ④ 참여제한 여부 등 · 평가결과에 따라 연구성과가 미흡한 과제는 중단* 또는 연구비를 감액 하고 연구비 부당사용 시 참여제한 및 제재부가금 부과 *Bottom-Up 과제의 경우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매년 일정비율 이상의 과제 강제 탈락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특성 및 평가결과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
연구개발과제의 기획평가관리비 (이하 기평비) 적정 수준 확보	· 과제 규모(대/중/소) 및 추진방식(Top-down/Bottom-up)을 고려하여 기평비를 산정하되, 과제 수가 증가하는 경우 증액 원칙

단계별 평가체계도 >>>

평가 단계별 주요 내용 >>>

선정평가
- 연구자는 과제의 성과목표, 연구 일정(마일스톤) 등을 포함하는 성과계획을 연구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 (※ 단계 협약과제의 경우에는, 희망 단계평가 시기 제시)
- 연구계획의 우수성, 과제목표·지표의 적절성, 목표의 달성가능성, 연구일정 등을 기준으로 연구과제 및 책임자 선정

중간평가
- 연구 결과 및 향후 연구계획 등을 토대로 과제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과제의 계속 진행 여부 결정
- 과제유형 및 평가시기에 따라 단계평가, 연차평가(중간 모니터링) 등 실시

최종평가
- 연구자는 연구결과와 성과목표 달성도를 포함하는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
- 연구 종료 후 최종 목표의 달성여부 등을 평가하여 최종 연구성과 확인

추적평가
- 과제 종료 후 3~5년간의 성과의 관리 실태 조사
- 연구결과보고서의 성과 활용·확산 계획의 이행여부 점검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공통사항 >>>

평가위원 선정
-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활용) 평가위원회의 위원 구성 시 관련 기술 분야의 전문가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
- (평가위원 제척기준) 평가위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제척기준은 최소화 하되,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 기준은 부처·기관별로 별도 설정 가능
- (평가위원 풀) NTIS의 평가위원 풀 및 정보를 활용하여 평가 위원을 선정

평가자료 작성
- 평가에 필요한 기본 자료는 공동관리규정(부령)의 표준서식을 활용
- 핵심적인 연구내용 중심으로 평가 자료를 간소화
- 평가에 필요한 정보 중, 국가연구개발정보표준에 의거하여 NTIS에서 수집되고 있는 자료는 연구자에게 별도 요구 없이 NTIS정보 활용이 원칙

이의신청 절차
- 피평가자는 평가·정산·제재조치 등에 대하여 방법 및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이의신청 처리 등이 완료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평가·정산·제재조치 결과에 대하여 최종 확정

과제수준의 성과지표 설정
- 과제 성과지표는 「표준성과지표」를 활용하여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하며, 질적 지표를 50% 이상으로 설정('17년까지)

적정기평비 산정
- 연구과제의 기획평가관리를 위해 대상과제 수 및 추진방식을 고려하여 과제유형별 연구기획평가 관리비 산정
- 연구기획평가관리비 운영의 안정성 및 투명성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예산을 별도의 항목으로 관리

제재 조치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평가에서 실패한 과제로 결정된 경우 참여제한(3년 이내) 및 사업비 환수 가능
- 단,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참여제한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음

미래창조과학부
성과평가정책과
정 나 영 서기관

정나영 서기관은 2002년 연세대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하고 2003년 기술고시(행정고시 46회)에 합격하여 행정자치부 전산사무관으로 공직을 시작했다. 2011년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소속을 옮겨 정부출연연 거버넌스 개편 추진, 과학기술 중장기 로드맵 마련 등 과학기술정책 수립에 기여했다. 현재는 미래창조과학부 성과평가정책과에서 국가R&D연구성과 관리·활용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든든한 지킴이,

직장어린이집을 가다

대전의 대표 직장어린이집
'사이언스 대덕어린이집'과 '사이언스 신성어린이집'을 가다

KWSE 2015 JULY
현장르포

여성과학기술인들이 마음껏 연구할 수 있도록 보육시설의 모범을 제시한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는 본회 설립 초기부터 여성과학기술인들의 행복과 연구 생산성 향상, 그리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덕연구단지 내 공동직장 보육시설 설립을 아래와 같이 추진해왔다. 출장과 야근이 잦은 여성과학기술인들에게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은 그 어떤 과제보다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는 여성과학기술인력의 경력 단절 문제를 해소하고 안정된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단지 내 보육시설 건립에 앞장섰다. 그 결과 1995년 사이언스 대덕어린이집, 2008년 사이언스 신성어린이집 개원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는 '여성 인력의 고용 확대 방안과 현재 연구단지 내 여성인력의 활용 실태'를 조사하여 여성 고용 문제를 정부에 제기함과 동시에, 연구단지 탁아소 설립에 대한 설문조사 및 기본조사를 통해 연구단지 탁아소 설립에 대한 정책을 제안하였다. 그 결과를 토대로 1995년 10월 사이언스 대덕어린이집이 개원되었고, 설립 후에도 운영방안 등에 관한 자문을 통해 전문 여성인력을 위한 공동 육아 시설로서의 운영모델이 되었다.

또한, 2004년 국가자문위에서 대덕종합보육센터의 필요성을 제시한 후 보육현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기관장협의회에 도움을 요청하고 과학기술부와 협력체를 결성해 예산 및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2008년에 개원한 사이언스 신성어린이집 설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가 이러한 노력을 통해 제2, 제3의 어린이집을 건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연구단지 내 공동직장 보육시설의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역할이 매우 크다.

대덕특구 내 직장어린이집 건립추진경위와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의 역할

1994. 10	연구단지 내 맞벌이 부부들의 자녀 위탁 보호 교육기관 설립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및 정책제안
1995. 10	사이언스 대덕어린이집 개원
2004. 07	국가자문위에서 대덕종합보육센터 필요성 제시
2004. 09	대덕종합보육센터 필요 앙케이트 조사
	기관장 협의회 도움 요청 및 과기부와 협력체 결성 및 대덕종합보육센터 예산 및 보고서 초안제출
2004. 10	국회 예결의에 대덕종합보육센터 필요성 설명
2005. 08	기획예산처에 대덕종합보육센터 기획안 통과
2005. 10	대덕종합보육센터 2006년도 예산 확정
2005. 11	종합보육센터 건립추진위원회 구성
2006. 06	실시계획 및 입주승인(과학기술부)
2006. 07	건축허가(유성구청)
	시공업체 선정 및 계약(조달청)
2007. 04	대덕특구 영유아 종합보육센터 기공식
2008. 03	사이언스 신성어린이집 개원

사이언스 대덕어린이집 전경

사이언스 신성어린이집 전경

사이언스 대덕어린이집 방문

화사한 벚꽃 잎이 봄과 이별하듯 흩날리던 4월 중순 아침,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사이언스 대덕어린이집을 찾았다. 마침 어린이집 대표 프로그램인 '영차영차 달리기'가 막 시작되었다. 자그마한 운동장에 두세 줄로 늘어선 아이들 10여 명이 유치원 선생님이 부르는 숫자에 따라 하나, 둘, 열심히 팔 다리를 앞뒤로 흔들어가며 체조를 하고 있었다. 표정에는 장난기가 가득했다. 어느새 준비운동을 마친 아이들은 앙증맞은 타원형 트랙을 따라 천천히 달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웃고 옆 친구와 이야기도 하며 장난기 가득했던 아이들의 표정이 1바퀴가 지나자 제법 진지해졌다. 3바퀴 정도 뛰고 나자 얼굴도 제법 발그레해지고 숨을 몰아쉬었다. 아이들의 표정은 마치 다른 어린이집의 운동회 날 풍경 같았다. 그러면서도 카메라와 눈이 마주치면 고사리 같은 손으로 브이를 그리며 웃어보였다.

사이언스 대덕어린이집 한혜숙 원장은 원장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영차영차 건강달리기'를 시작했다.
"영차영차 건강달리기는 우리 원 어린이에게 평소 운동하는 습관을 들이고 건강한 신체를 갖게 하고 싶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한 후 2년 정도 지났는데 시작할 당시보다 지금 아이들 건강이 눈에 띄게 향상됐어요. 이제는 운동회 날이 되면 어머니, 아버지 손을 붙잡고 1-2km씩 달리는 아이들 덕분에 부모님이 먼저 지쳐하세요. 아이들 변화에 놀라워하시죠.

처음 달리기를 시작할 때 아이들의 폐활량을 측정했는데 현재 많이 향상된 결과를 얻었다. 특히 다른 아이들보다도 폐활량이 부족했던 어린이들이 눈에 띄는 변화를 보였다. 이 프로그램은 국무총리 산하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다른 반에서는 4월의 색 '노랑'에 맞춰 노란 옷을 입은 어린이들이 노란 풍선 아래서 노란 바나나를 먹고 있었다. 계절마다 그에 어울리는 색을 주제로 여러 체험을 해보는 또 하나의 대표 프로그램이다.

사이언스 신성어린이집 방문

다음 날 찾은 사이언스 신성어린이집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KAIST, 대전시민천문대까지 대전에서도 대표적인 과학기관을 바주보고 자리하고 있다. 사이언스 신성어린이집 최효영 원장은 아이들이 주도해 진행하고 있는 수업현장으로 안내했다.

15명의 아이들이 2-4명씩 그룹을 이뤄서 언어부터 수 조작, 조형, 과학, 음률까지 다양한 프로젝트 활동 중 각자 하고 싶은 활동을 선택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한 쪽에서는 재생 종이를 만들기 위해 바스락거리며 열심히 신문지를 찢는가 하면, 둥근 테이블에 도란도란 둘러앉은 아이들은 먹음직스러운 음식 모형을 두고 밥 먹는 모습을 재현하고 있었다. 색색의 종이컵을 뒤집어 쌓으면서 공간감각과 색, 수까지 다양한 감각을 자연스럽게 배우는 아이들도 있었다. 신문지를 열심히 찢고 있는 어린이에게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고 물었더니 또랑또랑한 눈빛으로 "재생 종이를 만드는 건데요, 종이를 찢어서 물에 담갔다가 말리는 거예요"라는 야무진 대답이 돌아왔다. 매번 이 시간이면 아이들은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활동을 직접 정하고, 준비하고 주도적으로 수행한다. 여러 감각을 길러주는 이런 수업의 핵심은 무엇보다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도우며 또 다른 친구들과 협력해서 한다는 점이다.

사이언스 대덕어린이집_영차영차 달리기

사이언스 대덕어린이집_노랑데이

사이언스 신성어린이집_재생종이 만드는 아이들

사이언스 신성어린이집_쌓기 활동

사이언스 신성어린이집_태권도 시간

사이언스 신성어린이집 최효영 원장은 무엇보다도 인성교육에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 어린이집 최고의 가치는 도덕적인 어린이입니다. 우리는 교육프로그램의 모든 부분을 인성교육과 연관되도록 고안했습니다. 그런 덕분인지 우리 원 아이들은 서로 배려하는 모습이 남다릅니다. 장애가 있는 어린이도 함께 다니고 있는데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아이들이 서로 돕고 이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대덕특구 내 직장어린이집 현황

국내 최초의 공동 직장 보육시설로 지난 1995년 설립된 사이언스 대덕어린이집과 지난 2008년 개원한 사이언스 신성어린이집은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자리 잡고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비롯해 LG화학기술연구원, 충남대학교 등 40여 개 기관과 협약을 맺고 운영하고 있다.

현재 모두 500여 명의 어린이가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목표로 자라나고 있다. 최근에는 연구기관이나 기업이 자체적으로 직장어린이집 설립에 나서는데다 어린이 수가 해마다 줄면서 좀 덜해졌지만 여전히 매년 입학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100명 이상의 어린이가 자리가 나기를 기다리며 대기하고 있을 정도로 대덕에서는 이미 잘 알려진 곳이다.

두 직장어린이집이 설립된 후 대덕특구에 종사하는 가정은 몇 집 걸러 한 집씩 이 직장어린이집의 혜택을 받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두 직장어린이집이 비단 여성과학자 뿐 아니라 과학자, 연구를 지원하는 사람까지 많은 과학계 가정에 찾아온 어려움을 덜어주는데 큰 도움을 주고 그 결실이 알려지면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정부출연연구기관은 물론 LG화학기술연구원 등 민간기업도 직장어린이집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연이어 직장어린이집을 개원하고 있다. 이는 곧 직장 내 어린이집을 갖춘 기관 종사자들에게 또 하나의 자랑거리가 되어 사기를 높여주고 있다.

사이언스 신성어린이집에 매일 아침 아들 진호를 데려다주는 일로 하루를 시작하는 김은서씨는 직장어린이집에 입학하기 전까지는 멀리 부산에 있는 친정에 아이를 맡기고 어머니의 손을 빌려야 했다. 주말마다 아이를 만나러 부산을 오가는 길이 멀기도 했지만 가족과 떨어져있어야 한다는 것과 아이에 대한 미안함도 만만치 않았다. 다행히 올해 초 진호를 직장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게 되면서 대전으로 아이를 데려왔고 새삼 온전한 한 가족이 된 듯 행복을 느끼고 있다. 부산에서 사투리부터 배워가던 아이는 어느새 어린이집 친구들과 익숙해져 금세 사투리를 잊어가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지쳤다가도 힘이 난다는 김은서씨는 직장어린이집이 더 많이 생기고 활성화돼서 아직 직장어린이집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아이와 엄마, 아빠도 같은 혜택을 누렸으면 좋겠다고 한다.

김 씨는 "근무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은 높은 경력의 여성인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적으로도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길이며, 가정과 일이 제대로 양립할 수 있어야 두 분야 모두에서 자신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육아는 가정이 함께 힘을 모아 이뤄가야 한다는 점에서도 직장어린이집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의 역할

직장어린이집이 지금만큼 자리를 잡기까지 우여곡절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많은 여성과학자들이 직장어린이집을 활용하며 육아와 연구를 병행할 수 있었던 것은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는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을 막고 안정적인 육아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직장어린이집 설립에 발 벗고 헌신해왔다. 그 결과 일반 보육시설 보다 운영시간이 더 길고 1세만 되면 입학할 수 있는 직장어린이집이 과학도시 대전에서 첫 출발을 하게 된 것이다. 실제 사이언스 신성어린이집과 사이언스 대덕어린이집은 1세 영아부터 5세 유아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원아를 받고 있다. 초등학교에서 6년의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아이들은 직장어린이집에서 5년 이라는 긴 시간을 보내게 된다. 그 시간은 곧 여성과학기술인은 물론 과학기술인 가정이 안정적인 육아 환경 속에서 연구와 일에 열정을 쏟을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는 것과 같다. 그만큼 여성과학기술인에게 출산과 육아는 지대한 관심사이자 경력단절이 일어날 수 있는 큰 변환점이기 때문이다.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한성옥 회장은 "육아는 더 이상 여성만의 관심사가 아닌 만큼 직장 보육시설이나 시간 연장형 보육시설이 수요에 맞춰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며 "직업이 있는 여성과학기술인 뿐 아니라 박사과정을 보내게 되는 대학을 포함해 영유아 보육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절실하다"고 말했다.

대전일보
과학분야 담당기자
오 정 연

오정연 기자는 대전일보에서 대덕연구개발특구를 비롯한 과학분야 담당 기자로 일하고 있다. 우연히 과학과 만난 후 과학에 대한 관심과 지식을 심화하고 싶어 KAIST 과학저널리즘 대학원에 다니며 일과 공부를 함께 하는 중이다. 과학자와 일반인의 경계에서 "내가 이해한 것을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없다면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는 말과 "한 문장으로 의미를 전달할 수 없어도 지성인이라면 알아야 할 중요한 게 반드시 있다"는 말 사이를 열심히 넘나들며 취재하고 있다.

2015 여성과학기술인

과학탐구교실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KWSE)는 창립 초기부터 과학의 대중화 및 생활의 과학화를 주창하며, '대중과학 강연회'와 '생활과학 가이드북 발간' 등으로 대중에게 가까이 다가섰다. 특히 대전광역시의 지원을 받아 2004년부터 시행한 '여성과학기술인 과학탐구교실'은 KWSE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 가장 중요한 과학문화 확산사업으로 자리 잡았다.

올해로 12주년을 맞이하는 '여성과학기술인 과학탐구교실'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여성과학기술인들이 직접 대전광역시 소재 초·중·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각자의 전문분야를 소개함으로써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과학에 대한 접근 기회를 제공하고, 과학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 확보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청소년들의 이공계 기피현상을 타개하고,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역할 모델을 제시해 성 고정관념을 탈피시키는 데도 기여하고 있다. 더불어 과학기술에 대한 막연한 거리감을 없애고 미래의 진로를 선택해야 하는 청소년들에게 과학기술에 대한 친밀감과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다. 2004년 21개교 강연을 시작으로 2015년 현재까지 강연을 들은 누적 학생수는 880개 학교의 7만 여명에 달한다.

여성과학기술인 과학탐구교실은 대전시의 지원 아래 진행되고 있다. 대전시는 해마다 증가하는 강연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예산 지원을 증가시켰다. 이에 KWSE는 더 많은 청소년을 찾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2015년에는 과학 나눔 활동과 대학교 탐방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지역 내 복지시설의 소외계층 학생에게 과학도서 전달을 통해 과학탐구교실의 수혜 범위를 확대하여 과학 나눔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진학 및 진로체험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교 탐방은 여성과학기술인 강연과 함께 학과 소개 및 재학생과의 멘토링 시간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견문을 넓히고 학습에 대한 성취동기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난해 12월 과학탐구교실 사업의 일환으로 발간하여 큰 호응을 얻었던 「여성과학자가 들려주는 알쏭달쏭 과학이야기」를 보완하여 새롭게 발행할 계획이다. 기존 원고의 난이도 조정과 가독성을 높이고 새로운 원고를 추가 구성하여 과학 활용도가 높은 과학도서로 펴낼 예정이다.

여성과학기술인 과학탐구교실은 여성과학기술인들이 대전시 소재 초·중·고등학교를 찾아가 원자력, 생명과학, 항공우주 등 첨단과학 분야에 대한 강연을 실시해 과학 지식과 전공분야를 소개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여성과학자이다 보니 '엄마같이 친근해서 좋다',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써줘서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등 긍정적인 의견이 많다. 그 결과 특정 주제에 대해 4회 연속 강연하는 집중 강연과 대덕연구단지 연구원 탐방 프로그램으로 확대되어 운영되고 있다. 또한, 부산경남지부 등 지역 지부에서도 생활과학교실 및 과학캠프를 운영하고 있다.

2015년 과학탐구교실 선정 현황

- **1교 1과학자 강연:** 115개교 (초등학교 72, 중학교 25, 고등학교 18)
- **집중심화 강연:** 6개교 총 24회 (초등학교 2, 중학교 2, 고등학교 2)
- **연구원탐방:** 8개교 (초등학교 3, 중학교 4, 고등학교 1)
- **대학교탐방:** 2개교 (고등학교 2)

과학탐구교실 강연 실적 (2015. 6. 30. 기준)

- **1교 1과학자 강연:** 69개교 (총 115회, 60% 진행)
- **집중심화 강연:** 11개교 (6개교 총 24회, 49% 진행)
- **연구원탐방:** 3개교 (총 8회, 38% 진행)

2015 여성과학기술인

강연후기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기술원
이 해 초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에서 주관하고 대전시의 지원을 받아 2004년부터 시행한 과학탐구교실에 참여한지가 어언 10년이 넘었고, 제가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방문하여 강연한 학교의 수가 30여 학교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즐겁게 참여한 덕에 2014년도에는 대전시장상을 받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늦었지만 추천해 주신 위원님들과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여러분에게 이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 강의하던 2005년도에는 여성과학자가 강의를 한다고 하여 현수막도 걸고 교장선생님부터 교사, 아이들도 신기한 눈초리로 쳐다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과거에는 추운 겨울이 지나고 나뭇잎에 연한 아기 손이 나올 즈음인 4월, 과학의 달에 주로 강연을 하였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일 년 내내 강의 일정이 잡혀있어 과학탐구교실의 인기를 새삼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처구니없는 일이었지만, 2009년도 대암초등학교 초청강연 때 일이 아직도 생각납니다. 5학년 전체 학생 대상으로 2시간 강연을 마치고 2번째 강의를 준비하는 중에, 학교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감염되어 USB에 있는 파일이 읽히지 않아 결국 강의를 못하고 다음에 다시 강의를 하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강연을 할 때는 백업용 파일을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가장 생각이 나는 학교는 2010년도에 강연을 했던 은어송 중학교입니다. 담당 과학 선생님의 과학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셨고, 과학의 달에는 학교에서 연구기관에 요청하여 과학자들 초청강연을 하는데 내용이 어렵다고 말하시며 우리 회에서 강연하는 프로그램이 자료준비도 잘되어있고 쉽게 강의를 하여 학생들이 좋아한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기뻤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욱 준비를 잘해야겠다는 다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한 어떻게 하면 원자력에 대해 쉽게 설명할 수 있을지에 대해 여성원자력전문인들과 토의하던 중 표준 교안을 작성하여 활용하자는 의견을 모아 우리 연구원에 근무하는 연구원들과 함께 교재를 작성하여, 대전시에 있는 학교 뿐 만 아니라 전국 학교에 시범 강의도 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매년 학교방문을 통한 강의를 하다 보니 강의안을 계속 보완하게 되었고 연구원 홍보팀에 아이디어와 자료제공을 통해 연구원 차원의 한국원자력연구원 표준 강의안이 나오게 되어 일부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과학탐구교실이 더욱 발전하기를 바라며 추가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즉, 학생들에게 과학기술 분야가 어렵지 않고 친근해질 수 있도록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과학탐구교실을 개설하여 학기제로 운영하되 퇴직한 여성과학기술인들을 강사로 활용하면 과학기술에 대한 친밀도가 높아져 미래 과학인재양성에도 움이 될 것입니다.

저의 조그마한 노력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과학에 대한 희망과 꿈을 키울 수 있는 불씨가 된다면 저는 교육현장으로 언제든지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2

1. 신계초등학교 강연
2. 용전초등학교 강연

한국천문연구원
선임연구원
최 은 정

3	4

3. 장동초등학교 강연
4. 신흥초등학교 강연

과학에 관심 있어 모인 과학 동아리반 학생들, 과학자에게 직접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라고 대강당에 모인 400여 명의 학생들, 대전 외곽지역의 전교생이 30명이 안 되는 작은 초등학교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모두 모인 18명의 학생들, 강연이 끝나자마자 따로 찾아와 질문을 하며 사인도 해달라고 했던 학생들,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하며 정문까지 마중 나와 환대해주시는 선생님들, 모두 저와 함께 '우주를 향한 꿈과 도전-인공위성과 우주이야기'를 함께 한 분들입니다.

'우주란 어떤 곳일까요?' '인공위성은 어떤 일을 할까요?' '우주로 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행성을 탐사한 위성' '우주로 여행가자'등 인공위성과 우주로 풀어내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는 학생들을 보면 왠지 모를 뿌듯함이 밀려옵니다.

우주는 어릴 적 시골 밤하늘에서 바라보던 별들을 떠올리게 하는 감성과 과학을 동시에 느끼게 해주는 학생들의 관심을 끌기에는 더없이 좋은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주를 향한 꿈과 도전-인공위성과 우주이야기'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다. 과거 스푸트니크1호 발사 성공으로 우주개발이 시작되었던 시대부터 우리나라가 개발한 인공위성들, 나로우주센터에서 2번의 실패 끝에 멋지게 성공한 나로호의 발사장면 등 현재를 보고, 이제는 GPS를 이용한 네비게이션, 날씨를 예보하는 기상위성 등 인공위성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졌음을 알기도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를 상상하며 행성탐사위성과 우주선, 우주공항, 우주호텔 등 우주로 직접 여행을 가보는 미래의 이야기로 인간의 우주에 대한 꿈과 도전을 같이 그려봅니다.

강연의 대상에 따라 소그룹의 초등학생들에게는 위성모형 만들기, 별자리판 만들기, 우주쓰레기 처리 아이디어 대회 등 다양한 활동을 하기도 하고,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는 강당에서의 강연은 그래비피, 인터스텔라와 같은 영화와 함께 우주이야기를 풀어나가기도 합니다.

학생들이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 과학자가 직접 들려주는 이야기라는 전제는 강연의 힘을 더해주는 것 같습니다. 중·고등학생들에게는 진로와 관련된 얘기도 덧붙여 여성과학기술인으로서 걸어온 저의 길에 대해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넌 커서 뭐가 되고 싶어?" "넌 무슨 생각을 많이 해?" 등 제가 중·고등학교 때 경험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하고 있는 연구 분야와 연관시켜 얘기해주면 학생들의 관심과 집중도가 높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우주과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를 가면 되는지, 과학자들 연봉은 얼마나 되는지 등 실질적인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2006년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과학탐구교실과 인연이 되어 여러 학교의 다양한 학년의 학생들을 만나 강연을 하는 시간은 항상 설레고 저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올해는 한국천문연구원의 연구원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과학탐구교실 강연 팁을 공유하는 멘토링도 진행합니다.

미래의 주인공이 될 학생들에게 과학적인 꿈과 잠재능력을 꺼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와 대전시에 감사드리고, 더 많은 학생들과 여성과학기술인들이 과학탐구교실을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KIRD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KIRD 및 2015년도 교육과정 소개

창조경제 실현의 원동력, 과학기술인!
과학기술인의 인재양성 요람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원장 류용섭)은 2007년 과학기술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이다. KIRD는 창조경제의 실현을 위한 창의·융합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 조사·연구, 컨설팅 등으로 다양한 현장의 과학기술인을 지원하고있다. 체계적 연구 수행을 돕는 R&D 전주기 역량 강화 교육을 비롯해 정부 출연연구기관 대상 기본 교육, 이공계 대학과 중소기업 연구소 대상 전문 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과학기술인의 선도, 역량 강화에 필요한 조사 및 정책 연구, 기관 맞춤형 컨설팅, 자격제도 운영 등 보다 폭넓은 교육 서비스로 과학기술 인재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KIRD, 출연연·대학·기업 인력양성체계 완성
2015년 교육과정 운영 박차
과학기술인력교육 종합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 확보 기대

"교육은 더 멀리뛰기 위한 훈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생·강사·기획자들이 톱니바퀴처럼 잘 맞아야 합니다. 교육 기획자로서 수요자에 대한 이해와 요구사항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렴·반영하고 조언하는 KIRD가 되겠습니다."

KIRD가 '창의·융합 인재양성'이란 목표를 향해 본격적으로 나아가고 있다. 2014년과 비교해 올해 주목해야 할 교육 체계 변화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중소기업 대상 교육체계를 구축해 과학기술계를 이끄는 세 개의 중심축인 출연연, 대학, 기업에 대한 인력양성체계를 완성했다. 두 번째, 창조경제 실현이라는 국가 정책에 맞춘 교육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세 번째로 중장기 과정에 대한 현업 적용도 평가를 확대해 과정 설계에 반영한다.

그뿐만 아니라 입사부터 퇴사까지 전주기 생애 설계 과정을 개설해 전주기와 전 직급을 아우르는 교육 시스템을 만들었다. 최고경영자 R&D 실무 교육과정 등 중장기 교육과정을 늘려 교육 효과 극대화를 꾀한다. 글로벌 역량을 높이는 데도 일조하기 위해 해외 연수 교육도 준비한다.

KWSE 2015 JULY
KIRD 교육과정 소개

각 부문별 역할·기능 분석 토대로 교육 내용방법 설계·운영

국가 R&D 관점에서 차별화되는 각 부문별 역할과 기능을 분석해 적절한 교육 내용과 방법을 설계한 것이 2015년 교육 계획의 특징이다. 2015년 교육과정 설계의 한 축을 담당한 김성철 팀장은 "2015년도 교육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교육체계가 구축돼, 과학기술을 이루는 가장 큰 축인 출연연, 대학, 중소기업 모두를 교육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과학기술 인력을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교육체계가 마련됐다고 자부합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국가의 정책에 맞춰진 교육을 시범 실시해, 교육을 통해 정부의 정책을 실현할 예정이다. 현업 적용도 평가를 통해 교육이 실제 업무에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는지를 측정하고 현업과 관련성 높은 교육과정을 만들 계획이다.

'출연연 대상 교육'은 KIRD 교육의 중점 분야다. 올해로 2년차를 맞는 직위·직급별 기본 교육과 R&D 전 주기를 토대로 한 전문 교육, 출연연 행정직 고유의 직무 역량을 개발하는 R&D 행정 교육 등으로 구성돼 있다. '기본·전문·특별교육 총 47개 과정(126회)'이 개설될 예정이며 약 4,500명의 수료생 배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2015년에는 과학기술 인력의 생애 설계를 지원하는 '은퇴 예정자 과정', 고위 보직자의 경영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기관 경영진 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신규 직원의 기본 소양 강화를 위한 '국가 과학기술 신임자 과정'과 행정 직원의 실무 역량 고도화를 위한 'R&D 경영 전문가 과정'이 확대·개편돼 운영되고 있다.

'대학 대상 교육'은 교육 수요자 범위가 확대됐다. 기존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대학원생이 대상이었다면 올해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대학의 교수와 대학원생, 산학협력단 임직원까지 교육대상이 늘어났다. 총 21개 과정(107회)이 진행되며 6,000여 명이 교육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효율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장치도 마련된다. 즉, 지역별 안배를 고려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비율이 높은 대학 중 21곳을 거점 대학으로 선정해 협력할 계획이다. 자발적 수요에 기반을 둔 학사 연계 교육을 해당 대학 맞춤형 교육으로 제공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이는 데도 주력할 방침이다.

이공계 대학 교수와 대학원생을 위한 'R&D 기본 과정'이 신설·운영된다는 점과 시범적으로 운영됐던 산학협력단 임직원을 위한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이 6개 과정의 10회 운영에서 7개 과정의 18회 운영으로 확대 개편된 것도 눈여겨볼만한 대목이다. 김성철 팀장은 "대학생들은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가 드물어 교육 대상에는 속하지 않지만 향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예비 인력으로서의 대학생 교육도 검토하고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중소기업 대상 교육'은 KIRD에서 2015년에 최초로 시도하는 분야다. 주요 교육과정으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전략 과정', 'R&D 기획 실무 과정', '기술 사업화 전략 과정' 등이 있다. 김 팀장은 "중소기업은 출연연의 연구결과를 상업화·사업화·제품화 하는 역량이 필요합니다. 올해는 R&D 공통부분 외에 기술교육도 같이 실시하는 등 관련 역량 향상에 초점을 맞춰 과정을 설계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먼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밀접하게 연계돼 있는 출연연 패밀리 기업을 우선 교육 대상으로 삼는다.

출연연 패밀리 기업 간 벽을 허물어 타 연구소에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융복합 교육의 진수를 보여줄 예정이다. 김 팀장은 "앞으로 각 지역 테크노파크와 연계해 타 지역 중소기업 임직원 대상 교육으로의 확대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다만 타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각 수요와 분야별 지역별 특색이 중요 고려 대상이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KIRD는 과학기술 인력의 상시 학습 지원으로 교육 참여 기회 확충 및 역량 개발 저변 확대를 구현하기 위해 R&D 필수, R&D 전문, 융·복합 역량별 '이러닝'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김 팀장에 따르면 이러닝은 좋은 콘텐츠와 시스템이 같이 구축되어야 시너지를 발휘한다. 하지만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콘텐츠는 상당히 부족한 편이다. 이에 따라 KIRD는 작년, 어떤 콘텐츠를 제작해야 할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김 팀장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국가 R&D에 관련한 이러닝 콘텐츠를 다수 개발하고 이를 잘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 업그레이드에도 힘을 쏟을 것입니다. 또한 올해 말까지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완료하고 콘텐츠는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업로드 할 것입니다"라고 계획을 밝혔다.

"2015년은 KIRD가 교육을 통해 산·학·연을 총괄 지원하는 원년으로써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교육 수요자에 대한 이해와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조사 연구와 컨설팅 등도 지속적으로 진행해 교육과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과학기술인력 창의·융합 인재 양성과 국가 발전 패러다임인 창조경제 실현이라는 KIRD의 비전에 맞춰 과학기술 인력의 실질적 역량 강화를 꾀할 수 있는 교육을 지속 확대·강화해 과학기술인력교육 종합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겠습니다."

KIRD 비전

Vision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과학기술인 성장의 요람 KIRD!"

Management Objectives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맞춤형 창의·융합 인재 양성

- 과학기술인 역량 강화
- 과학기술인 양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선진 경영 체계 구축 및 문화 창달

WITH KIRD
Widespread Intensive Tailored Human-Oriented KIRD

교육 | 조사·연구 | 컨설팅 | 자격

지속 가능 경영 체계 구축 및 제공

KIRD 주요사업

출연(연) 및 공공 기관 교육
과학기술 인력의 생애 주기를 고려한 출연(연) 및 공공 기관 재직자의 직위/직급 및 단계별 역량 강화 교육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대학 교육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대학 소재 연구책임자(교수 등), 대학원생, 산학협력단 임직원 등의 기초 역량 강화 교육

중소기업 연구소 교육
출연(연) 패밀리 기업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계하는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 강화 교육

한편, KIRD는 오창 본원으로 이전을 앞두고 있다. 아무래도 교육 수요자들이 가장 많은 대전을 떠난다는 것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존재할 터. 김 팀장은 이런 걱정에 대해 "오창 본원에서는 더 좋은 교육 효과를 낼 수 있는 숙박교육 위주로 진행하며 대전 분원은 기본교육을 실시하는 교육장으로 사용됩니다."라고 설명했다.

오창 독립청사 건립 사업 개요

·**위치:** 충북대학교 오창 부지 내 ·**사업기간:** 2012년 ~ 2015년 ·**규모:** 부지 24,032㎡, 건물 6,915㎡

교육업무동 (3층)	기숙사동 (5층)	식당동 (1층)
교육장: 50인 3실, 100인 1실, 대강당, 분임토의실 2실 **사무공간:** 원장실, 사무실, 회의실 등	**기숙시설:** 1인 10실, 2인 32실, 단체 1실 **편의시설:** 체력단련실	**식당:** 100인 수용 **간이 매점**

추진 현황

·충북대학교와 부지 무상임대 협약체결('11. 8)
·독립청사 기공식('13. 10. 30)
·독립청사 완공 및 입주('15. 8월 예정)
·준공식('15. 9월 예정)

오창 독립청사 조감도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인재개발기획팀장
김 성 철

김성철 팀장은 카이스트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이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에서 R&D행정 교육체계, 대학 산학협력단 교육체계, 연구개발서비스 전문인력양성사업, 경력복귀 여성과학기술인 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 참여위원으로도 활동한 바 있으며, 2012년에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표창, 2013년에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제5회
APNN Meeting
현장스케치

APNN은 2011년 7월 호주 애들레이드에서 열렸던 ICWES15(제15차 세계여성과학기술인대회)에서 창립된 INWES의 지역 네트워크 모임이다. KWSE는 APNN의 제1대 회장국으로서 아시아 여성과학기술인의 역할 및 지위향상에 기여하고 개도국 여성과학기술인들에게 우리나라의 여성과학기술정책 및 발전 모델 전수를 했다. 특히, 베트남과 몽골에서 여성과학기술인 단체가 결성되는데 있어 롤모델이 되었다. 현재 APNN 회원은 11개국 12개 단체회원, 2명의 개인회원으로 총 12개국 14개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은 작년 제4회 APNN Meeting을 마지막으로 회장국 임기가 종료되었고 일본에게 회장국을 인계하여 올해 제5회를 맞이하였다.

제5회 아시아·태평양 여성과학기술인 네트워크(Asia & Pacific Nation Network; APNN) Meeting이 6월 25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APNN(2대 의장 Dr. Kayoko Sugahara, 일본)에는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 베트남, 대만, 네팔, 미국, 몽골 각 국가의 APNN 대표를 포함하여 8개국 60여 명이 참석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INWES 회장인 이화여자대학교 이공주 교수,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한성옥 회장, 김혜영, 백란 부회장, 박선희, 부하령 이사와 APNN 초대 의장인 유향숙 박사를 포함하여 총 7명이 참석했다.

INWES 4대 회장으로 재 선임된 이화여자대학교 이공주 교수는 개회사를 통해 "제5회 APNN Meeting이 우리 새로운 조직 몽골 여성과학기술인회(Woman in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in Mongolia; WSTEM)가 주관하여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개최되어 매우 자랑스럽고 이번 미팅이 아시아·태평양 국가에서 우수여성과학기술인이 되기 위한 또 다른 역사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APNN 초대의장 유향숙 박사의 'APNN의 역사 그리고 전망'에 대한 초청강연, 이공주 교수의 'INWES의 역사, 성과, 도전 그리고 미래'에 대한 강연이 이어졌다. 이후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10대 회장 한성옥 박사의 'APNN country report' 발표를 통해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의 활동을 소개하고, 2015년 10월에 대전에서 개최될 YWS Camp 참여를 독려했다.

이번 2015년 APNN 미팅에서는 각국들의 country report 발표 후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네트워킹을 수행하기 위한 4개의 주제를 선정하고 Working Group을 아래와 같이 정하였다.

또한 뉴질랜드 여성과학기술인회(Institution of Professional Engineers New Zealand; IPENZ)회에서 제안한 차기 개최국 요청이

워킹그룹	주제
몽골, 여성과학기술인회 (WSTEM)	Exchange/visiting program development
한국,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KWSE)	Empowering/education program development
대만, 여성과학기술인회 (TWiST)	Gathering program development
말레이시아/베트남, 여성과학기술인회 (WE-Malaysia, VAFIW)	Gender equality/governmental act

받아들여져 2016년 제6회 APNN은 뉴질랜드 웰링턴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이번 행사에 참석했던 참가자들 모두 내년 APNN Meeting에서 다시 만나기로 기약했다.

다음날, International Conference of Women in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ICWSTEM)가 APNN Meeting과 연계 개최되어 'Women in Education Reform and Innovation'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여성과학기술인들의 연구 정보를 교류하였다. 또한 몽골 교육과학부 L.Gantumur 장관, M.Batchimeg 국회의원, INWES 이공주 회장의 축사를 통해 여성과학기술인들을 격려하였다.

백란 부회장은 'A program research to enhance women scientists' participation rate in basic research projects'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또한 부하령 이사의 '파필로마 바이러스와 자궁암'에 대한 구두발표와 김혜영 부회장과 박선희 이사의 포스터 발표도 각 분과별로 진행되었다.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한성옥 회장은 몽골 국영방송사 MNB의 인터뷰 요청으로 한국여성과학기술인들의 활동과 지원에 대해 소개했고, 유향숙 박사는 어떻게 하면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 수 있는지와 이를 위해 어떤 방안이 필요한지에 대해 설명했다.

2011년 12월에 설립된 몽골 여성과학기술인회(WSTEM)는 설립된 지 3년 6개월 만에 이번 APNN Meeting 주관하게 됐다. 이를 계기로 WSTEM은 정부와 국회로부터 여성과학기술인들의 역할에 대해 많은 관심을 받았고 기업들의 경제적인 지원도 받았다. 그로인해, WSTEM이 세계 여성과학기술인들과 글로벌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고 몽골 여성인력들이 대외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구심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아직 여성과학기술인회가 설립되지 않은 네팔과 같은 아시아 국가들에게 롤 모델이 되었다. 더불어 행사기간 중에 몽골과학기술대학의 많은 학생들과 WSTEM 이사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참여가 성공적인 행사를 개최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APNN Meeting 개최 현황

차수	개최일자	개최지	주관	참석규모
1회	2011년 7월 19일	호주 애들레이드	KWSE	19개국 70여명
2회	2012년 6월 1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IEM	14개국 40여명
3회	2013년 9월 14일	대만 타이베이	TWiST	12개국 70여명
4회	2014년 7월 30일	대한민국 서울	KWSE	11개국 60여명
5회	2015년 6월 25일	몽골 울란바토르	WSTEM	8개국 60여명
6회	2016년 여름	뉴질랜드 웰링턴	IPENZ	-

KWSE Smart Sister Program

서울지역 활동

1차: 2015년 1월 30일 (금), 서울 안암역 / 참석자: 7개국 13명

2015년도 첫 스마트시스터 프로그램이 1월 30일 서울 안암역에서 개최되었다. 네팔,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집트, 인도, 방글라데시, 나이지리아 총 7개국 13명의 주한 여성 외국인 대학(원)생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윤혜온 박사 그리고 고려대학교 이미혜 교수가 참석했다. 이번 만남에서는 이미혜 교수의 초청강연으로 주한 여성 외국인 대학(원)생들에게 대학(원)생활에 대한 조언과 여성이 전문적인 능력을 계속 향상시켜야 하는 이유에 대한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미혜 교수는 학생들에게 '여성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강점을 살릴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5년도 첫 만남을 시작으로 서울지역 스마트시스터 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 페이스북에 '서울지역 스마트시스터 프로그램 비공식 그룹'을 개설하여 스마트시스터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참여 독려를 적극적으로 할 예정이다.

2차: 2015년 2월 27일 (금), 서울 종각역 / 참석자: 7개국 14명

스마트시스터 서울지역 2차 만남은 2월 27일 서울 종각역에서 개최되었다. 한국을 포함한 네팔,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도, 요르단, 나이지리아 총 7개국 14명의 주한 여성 외국인 대학(원)생이 참석했다. 설문을 통하여 스마트시스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이 겪고 있는 한국 생활의 어려움, 스마트시스터 프로그램에 대한 조언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총 응답자는 11명으로 설문에 성실히 답변했다. 응답자의 구성은 4명이 석사 과정 중이고 6명은 박사 과정, 나머지 1명은 박사 후 과정 중이였다. 한국 거주 기간을 묻는 질문에는 54% 이상이 한국 거주 3년 미만 이였으며 나머지 46%는 4년에서 6년 미만 이였다. 스마트시스터 프로그램을 알게 된 경로에 대한 질문에 80% 이상이 주변 친구나 교수로부터 스마트시스터 프로그램을 알게 되어 참여하게 되었다고 답변했다. 또한 스마트시스터 프로그램 참여가 한국 생활에 도움이 되었느냐는 질문에 54% 이상이 타 국가 학생들과 한국의 우수여성과학기술인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국 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점을 묻는 질문에는 63% 이상이 한국어를 하지 못해 대학 생활이나 한국 친구를 사귀는 것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된 한국 친구들과 어울리는 횟수를 묻는 질문에는 50% 이상이 한국 친구보다 외국인 친구를 사귀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런 답변이 나온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언어 문제와 한국 학생들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스마트시스터 프로그램에 바라는 점에 대하여 자유롭게 답변 하는 문항이 제시되었다. 외국인 유학생 뿐 만 아니라 국내 여성과학기술인들과 만남의 기회 제공, 과학기술분야 학회 및 컨퍼런스 참석 기회 제공, 한국 문화 또는 한국 생활에 적응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요청하는 답변이 많았다. 이번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학생들과 주한 외국 학생들의 소통의 기회를 늘리기 위하여 현재 국내 스마트시스터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을 실시하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3차: 2015년 5월 7일 (목), KBSI 서울센터 / 참석자: 4개국 9명

스마트시스터 서울지역 3차 만남은 5월 7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서울센터에서 개최되었다. 한국과학기술원의 남길수 박사가 참석하여 가정의 달 5월의 중요 행사인 어버이날과 스승의 날에 대해 소개하고 참가자와 함께 카네이션을 만들어 한국 문화를 알리고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참가자들은 직접 카네이션을 만들며 한국의 어버이날과 스승의 날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고 각국의 문화를 공유했다. 또한 함께 참석한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윤혜온 부회장은 올 10월에 열리게 될 YWS Camp에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YWS Camp에 마련되었으면 하는 콘텐츠에 대한 의견을 논의했다.

대전지역 활동

1차: 2015년 3월 26일 (목), KIER / 참석자: 7개국 12명

지난 3월 26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스마트시스터 대전지역 1차 만남이 개최되었다.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인도, 방글라데시, 필리핀, 베트남, 탄자니아, 한국의 총 7개국 12명의 여대학(원)생들과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한성옥 회장,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곽지혜 박사가 함께 참석했다.

한성옥 회장은 올해 첫 대전지역 스마트시스터 프로그램에 많은 학생들이 참석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스마트시스터 프로그램을 통하여 연구 분야 뿐만 아니라 한국 생활에 대한 활발한 정보 교환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곽지혜 박사의 태양광 실험실 견학을 통하여 새로운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흥미를 이끌어 내고 발전된 한국 과학기술 분야를 알리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곽지혜 박사는 태양광, CIGS 박막 태양전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학생들에게 연구 분야에 대한 조언으로 학생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냈다.

광주전남지역 활동

1차: 2015년 4월 15일 (수), 전남대학교 / 참석자: 2개국 25명

스마트시스터 광주전남지역 1차 만남이 4월 15일 전남대학교에서 개최되었다. 광주전남지역 스마트시스터 프로그램은 베트남 지역 48명의 주한 외국인 대학(원)생이 참석하고,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광주전남 지부장인 신윤숙 교수와 전남대학교 강순형 교수, 이정숙 교수가 참석했다. 스마트시스터 광주전라지역은 국가별 모임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연말에 국가별 연합 만남을 계획하고 있다. 2차 만남은 중국 대학(원)생과 만날 예정이다.

대구경북지역 활동

1차: 2015년 5월 1일 (금), 대구 / 참석자: 4개국 11명

스마트시스터 대구경북지역 1차 만남이 5월 1일 금요일 영남대학교 개최되었다.

2014년부터 참석하고 있는 대구경북지역 스마트시스터 프로그램 참여자들 중 약 70% 이상이 네팔인으로 4월 25일에 갑작스럽게 발생한 네팔 지진에 대한 애도를 표하고 네팔 학생들의 고향에 피해가 없는지 안부를 물었다.

또한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네팔 지진피해 성금 모금 운동'에 대해 전하며 더 이상의 피해가 없기를 기원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카네이션을 학생들이 직접 만드는 시간을 통하여 어버이날과 스승의 날에 대해 소개하며 한국 문화를 공유하는 시간을 보냈다.

2차 프로그램은 1학기가 끝나고 하기 방학 중 진행 될 예정이다.

여성과학기술인
과학융합아카데미
Fusion Academy of Sciences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는 2014년부터 여성과학기술인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여성과학기술인 과학융합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여성과학기술인 과학융합아카데미는 여성과학기술인, 국회, 정부, 지식재산권 전문가를 대상으로 과학기술 정책, 법률, 지식재산권 등의 주제에 대한 최신동향 및 산업동향, 관련제도 등의 고급 정보 교류를 통해서 여성과학기술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2014년도에는 정부와의 아카데미, 국회와의 아카데미, 지식재산권 아카데미를 각 연2회 개최했으며 각 분야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고 참가자 간 네트워킹 강화, 상호간 협력의 기초를 마련하는데 기여했다.

앞으로 지속적인 아카데미 운영을 통해 여성과학기술인 활용확대 및 역량강화에 필요한 체계적이고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부와의 아카데미

일자: 2015년 3월 9일 (월) 장소: 경기도 과천

지난 3월 9일 경기도 과천에서 '과학기술분야 여성인력 네트워크 및 융합아카데미'가 개최되었다. 본 아카데미에는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에서 한성옥 회장, 김경숙, 김혜영, 윤혜온, 한선화 부회장, 한미정 총무이사, 부하령 이사, 최한나 실장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 융합기술과 송경희 과장, 정보통신산업과 이은영 과장, 연구제도정보과 한형주 과장, 미래기술과 조현숙 팀장, 성과평가정책과 정나영 서기관, 연구환경안전팀 전영희 서기관, 미래인재정책과 최미정 서기관이 참석했다.

본 아카데미에서는 과학기술 분야 여성인력의 역량강화 방안을 위한 세미나 개최와 과학융합아카데미 활성화를 위한 협력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과학기술 분야 여성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활동에 제약을 받는 여성연구원들의 참여를 이끌고 범위를 확대하여 세미나, 발표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방안마련에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과학융합아카데미 활성화를 위해서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협력하여 연구원에 직접 방문하여 강연 등의 진행을 통해 연구현장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나눴다.

이번 아카데미를 통해 정부에서 과학기술 정책을 주도하는 여성 R&D 공무원과 연구현장에 있는 여성과학기술인들이 서로 소통하여 상호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고, 앞으로도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제3회 여성과학기술인과 특허청이 함께 하는 지재권 아카데미

일자: 2015년 5월 27일 (수) 장소: 국립중앙과학관 세미나실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가 주최하고 특허청이 주관하는 '제3회 여성과학기술인과 특허청이 함께 하는 지재권 아카데미'가 5월 27일 국립중앙과학관 사이언스홀 1층 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아카데미에는 여성과학기술인, 연구생, 특허청 등을 포함하여 60여 명이 참석했다.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한성옥 회장은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아카데미에 참석해주신 내빈 및 참석자 분들께 감사드리고 이번 아카데미를 통해 지식재산권을 일상생활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좋은 기회가 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민병주 국회의원(8대 회장)은 "제3회 지재권 아카데미 개최를 축하드리고 이번 아카데미에서 다뤄지는 내용들을 대덕연구단지의 많은 연구원들에게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연구하는 분들이 최적의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국립중앙과학관 김주한 관장은 "발명은 미래과학을 여는 힘이고 발명품을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재권 아카데미가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해와 관련 정보를 알리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또한 "지식재산권을 활용하여 창조경제시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길 바라고 이번 아카데미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특허청 특허심사3국 이해평 국장은 "현재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조하는 창조경제의 시대이고, 우리나라가 2014년도 GDP대비 R&D 비중이 세계 1위였지만 앞으로 더욱 노력하여 기술경제의 우위를 점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아카데미를 통해 지재권에 대한 기본 소양을 갖추고 연구개발의 최적의 성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는 3개의 강연으로 진행되었으며, 다양한 특허 관련 주제로 참가자들의 집중과 호응을 이끌었다. 첫 번째 강연을 한 특허청 추장희 심사관은 지재권 아카데미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함께 '특허검색 방법'이라는 주제로 효율적인 특허검색 방법, 특허검색 사이트와 다양한 특허정보 DB별 연산자, 키워드를 이용한 검색 방법 등을 자세히 소개했다. 특히, 특허 기술정보를 활용할 때 기술적 이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허청 박상현 심사관은 '소프트웨어와 특허제도'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박상현 심사관은 특허여부를 결정하는 심사관에 대해 간략한 소개와 함께 일상생활의 사례 위주의 강연을 통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높혔다. 또한 참가자들에게 생소한 소프트웨어특허 개념을 설명하며 "소프트웨어특허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해준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강연을 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우현 부장은 'ETRI 기술이전 프로세스 및 사례'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김우현 부장은 ETRI에서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 기술이전 및 지식재산 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과 우수 사례 등을 소개하며 평소 기술이전 및 특허관리 전반에 대한 궁금한 점에 대해 해결 할 수 있는 강연을 펼쳤다.

강연 후에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지며 더 가까이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하고 많은 참가자들의 큰 호응과 관심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에 대한 정보를 알리고 공유하는데 기여했다. 마지막으로 오찬과 함께 참가자 간 네트워킹의 시간을 가지며 행사를 마무리 했다.

지부소식

2015 광주전남지부(신윤숙 지부장) 운영회의 개최

일자: 2015년 3월 4일 (수) **장소:** 광주 오치동

지난 3월 4일 광주 오치동에서 2015 광주전남지부 운영회의가 진행되었다. 광주전남지부 신윤숙 지부장, 이종숙, 이경숙, 강순형 전남대학교 교수가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2015년 Smart Sister Program의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를 통해 지난해 Smart Sister Program보다 많은 학생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국제 학생들의 인적교류 및 공동 연구를 위하여 직접 소그룹을 형성하여 친밀감을 높이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부산울산경남지부(김정선 지부장) 이사회 개최

1차

일자: 2015년 3월 13일 (금) **장소:** 부산 서면

지난 3월 13일 부산 서면에서 2015 부산울산경남지부의 제1차 이사회가 열렸다. 지부장인 동서대학교 김정선 교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우선옥 박사, 동서대학교 엄미례 교수, 동아대학교 안영희 교수, 한국수산과학원 김영혜 교수, 울산발전연구원 박혜영 박사, 부산대학교 김효정 교수가 참석한 이사회에서는 2015년 예산 집행과 지부 활동 운영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중요한 지부 사업은 Smart Sister Program, 지부 세미나, 지식재산권 특강 및 공대여학생 경진대회이다.

Smart Sister Program은 2014년 참여자를 중심으로 해양수산원 방문, 한국 문화 탐방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2014년 처음 개최되었던 공대여학생 경진대회의 경우, 올해는 동아대학교 안영희 교수가 주관하여 '공대 여학생이 바라보는 2030년'이라는 주제로 부울경 지부 공대 여학생을 대상으로 진행 될 예정이다. 이 외 11월에 지부총회가 열릴 예정이며, 지부총회에서는 새로운 지부장을 선출할 계획이다.

2차

일자: 2015년 4월 23일 (목) **장소:** 부산 서면

지난 4월 23일 부산 서면에서 2015 부산울산경남지부 제2차 이사회 및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김정선 부울경 지부장, 부산대학교 김효정 교수, 국립수산과학원 김영혜 박사를 포함하여 총 15명이 참석했다. 2015년 부울경지부의 행사 계획을 발표하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후 동서대학교 메카트로닉스융합공학부 엄미례 교수는 '수학, 내사랑 내곁에…'라는 주제로, 안영희 교수는 '환경이야기: 지구와 우리의 건강' 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를 진행했다. 부울경지부 회원들은 각자의 연구성과를 공유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네트워킹하는 시간을 가졌다.

2015 대구경북지부(김정애 지부장) 융합워크숍 개체

일자: 2015년 4월 24일 (금) **장소:** 경북대학교 IT대학

지난 4월 24일 경북대학교에서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천을 위한 국민연합(이하 과실연), KWSE 주최, 과실연 대구경북지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후원으로 '2015 4월 대경권 과실연·KWSE 오픈포럼'이 개최되었다. 과학기술인 50여 명이 참석한 본 포럼에는 '대구 창조경제단지 조성계획과 비전'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대구경북권 과실연 대표 조진호 박사와 KWSE 대구경북지부장 김정애 교수가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경북대학교 손동철 총장의 환영사와 과실연 이우일 상임대표, KWSE 한성옥 회장, 영남대학교 노석균 총장, 금오공과대학교 김영식 총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이날 오픈포럼에는 새누리당 권은희 국회의원의 '대구 창조경제단지 조성계획과 비전'에 대한 발제를 통하여 대구 창조경제단지 실현을 위해 미래인재양성, 미래창조타운 조성, 다각적인 추진 프로그램 등을 통한 노력 및 새로운 창조경제 모델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경북대학교 김덕규 교수가 좌장을 맡아 패널토의가 진행되었고 3명의 패널들이 대구 창조경제단지 조성계획에 대한 각자의 생각과 관점에 대해 이야기 나누며 의견을 공유했다.

2015 부산울산경남지부(김정선 지부장) 세미나 개최

일자: 2015년 6월 19일 (금) **장소:** 부산대학교

지난 6월 19일 금요일 부산대학교에서 부산울산경남지부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KWSE 5대 회장이자 기초과학연구원 상임감사로 재직 중인 정명희 박사의 특강으로 진행되었다. 정명희 박사는 '과학기술인, 대한의 여성과학기술인'이라는 주제로 과학기술인이 가져야 할 자세 및 비전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이는 후배 여성과학기술인들이 앞으로 과학계의 리더로서 성장해 가는데 있어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의였다. 이후 부산대학교 하경자 교수,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부산센터 원미숙 소장, 지부장인 동서대학교 김정선 교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우선옥 박사, 부산대학교 김효정 교수가 정명희 박사와 함께 앞으로 여성과학기술인의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우수 여성 R&D 인력 및 우수 고용기업 사례발굴 사업

일자: 2015년 4월 21일 (화) **장소:** 서울 더케이호텔

KWSE는 지난 4월 21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우수 여성 R&D 인력 및 우수 고용기업 사례 발굴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성옥 회장, 김경숙, 윤혜온 부회장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전략기획팀 길창민 팀장, 김영미 선임연구원, 최수진 연구원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우수 여성 R&D 인력 및 우수 고용기업 사례발굴'에 대해 협조 방안과 홍보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앞으로 사업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1차 자문회의 개최

일자: 2015년 5월 20일 (수) **장소:** KWSE 사무국

지난 5월 20일 KWSE 사무국에서 '우수 여성 R&D 인력 및 우수 고용기업 사례발굴 제1차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자문회의에서는 한성옥 회장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유향숙 박사를 포함하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안병민 연구위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기평 책임연구원이 참석했다. 이날 처음으로 진행된 자문회의에서는 자문위원들에게 '우수 여성 R&D 인력 및 우수 고용기업 사례발굴'에 대한 사업을 소개하고, 사례발굴 기초조사 및 실태조사에 대해 자문을 구했다. 자문위원들은 우수 여성 R&D 인력 및 우수 기업 사례발굴 기초조사 및 실태조사에 대해 자신만의 노하우를 공유하며, 적극적인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앞으로 사업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2차 자문회의 개최

일자: 2015년 6월 18일 (목) **장소:** 카이스트 패컬티클럽

지난 6월 18일 '우수 여성 R&D 인력 및 우수 고용기업 사례발굴 제2차 자문회의'가 카이스트 패컬티클럽에서 개최됐다. 2차 회의에서는 KWSE 한성옥 회장과, 김경숙 부회장을 포함하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안병민 연구위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유향숙 박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기평 책임연구원, 배재대학교 한미영 교수가 자문위원으로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는 우수 여성 R&D 인력 및 우수 고용기업 사례발굴을 위한 기초조사 회산율 저조에 따른 방안을 강구하고 우수기업 포상에 관해 우수기업 선정절차를 논의하고 공고방법, 세부추진일정 등의 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우수기업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평가기준의 명확성과 여성 R&D 인력 경력단절 예방 항목의 심사비중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여성 R&D 인력 고용포럼 Working Group 착수회의 개최

일자: 2015년 6월 15일 (월) **장소:** 카이스트 패컬티클럽

KWSE는 지난 6월 15일 카이스트 패컬티클럽에서 '여성 R&D 인력 고용포럼 Working Group 착수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성옥 위원장,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배재성 간사, 한국원자력연구원 박선희,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부하령,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류대성,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유향숙, 대덕넷 윤혜정,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이정재 위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김영미 선임연구원, 김완 연구원이 참석했다. 본 회의에는 여성 R&D 인력 고용포럼 Working Group(W/G)을 소개하고 고경력 (여성)과학기술인 및 산업체, 출연연, 대학의 퇴직 과학기술인 활용 및 재능기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산업현장의 여성 R&D 인력 확충 방안에 대한 최종목표를 세웠다. 세부적인 활동계획으로는 월간 W/G 회의를 통해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과 재능기부 프로그램에 대한 주제발표 및 토론을 진행하고 전문가 그룹 활동을 통해 고경력 과학기술인 현황 및 국내외 사례조사 등의 자료 분석 발표 및 보고서 작성을 통해 전문성을 높일 예정이다.

KWSE 제11대 회장선거 안내

올해 KWSE 제11대 회장선거가 개최된다. 지난 3월 정기 이사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위원장으로 이선영 이사, 위원으로는 김숙경, 김신애, 김정애 이사, 주성진 수석총무, 최은정 운영위원, 감사는 추장희 박사로 총 7명이 포함되었다. 다음의 일정과 같이 6월 초에 선거권자를 확정한 후 7월 초에 선거공고 및 투표권자 명단을 공표했다. 후보자가 등록되면 9월에 회원들의 투표를 통해 제11대 회장이 당선될 예정이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선영 (충남대학교)

위 원: 김숙경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김신애 (한국원자력연구원), 김정애 (영남대학교), 주성진 (국방과학연구소), 최은정 (한국천문연구원)

감 사: 추장희 (특허청)

내 용	일 정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3월 18일 (수)
선거권자 확정	6월 10일 (수)
선거공고 및 투표권자 명단 공표	7월 10일 (금)
후보등록마감	7월 24일 (금)
후보공지	8월 3일 (월) ~ 8월 23일 (수)
이의신청 마감	8월 7일 (금)
투표일	9월 1일 (화) ~ 9월 23일 (수)
개표 및 당선자확정	9월 30일 (수)
결선투표 및 당선자확정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0월 2일 (금) ~ 10월 13일 (화)
총회 보고	12월 초 예정

KWSE 사무국 이전

KWSE 사무국이 지난 5월 카이스트 내 나노종합기술원 806호로 이전하였습니다. 회원 여러분께서 언제든 방문하시고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활짝 열린 문과 감사의 마음으로 모든 여성과학기술인들을 환영합니다. 앞으로도 KWSE 사무국에서는 회원 여러분의 활동을 아낌없이 지원하고 회의 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새로 이전한 사무국의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 소: 305-338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번지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나노종합기술원 E19 806호
전 화: 042-863-8310~2
이메일: kwse@kwse.or.kr

여성과학기술인 활동 및 네트워킹 활성화 방안 간담회

일자: 2015년 4월 17일 (금) **장소:** 호텔리베라유성 피어니룸

KWSE가 주최하고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후원한 여성과학기술인 활동 및 네트워킹 활성화 방안 간담회가 4월 17일 호텔리베라유성 피어니룸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간담회는 '여성과학기술인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초대 회장인 오세화 박사, 정명희 박사(5대 회장), 이공주 교수(6대 회장), 신용현 원장(9대 회장)을 비롯하여 KWSE 초대 임원을 역임한 선배 여성과학자들과 제10대 임원들을 포함하여 20여 명이 참석했다.

한성옥 회장은 오랜만에 KWSE 초대 임원들을 만나 뵈어 반갑고 선배님들의 끊임없는 애정과 노력에 의해 22년이 지난 지금 예산 및 회원 수가 증가하여 사업을 탄탄하게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신 선배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앞으로도 이러한 자리를 마련하여 후배들에게 좋은 의견 및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KWSE를 설립하시고 회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해주신 오세화 초대회장은 퇴직 여성과학자들과의 네트워크 기반조성의 중요성을 언급하였고 앞으로 회의 발전을 위해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명희 박사는 이제는 KWSE의 내실을 다져야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다른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민병주 국회의원(8대 회장)은 축전을 통해 간담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하고 이번 간담회가 성황리에 개최되기를 기원하며 앞으로 더 큰 발전을 이루길 바란다고 전했다.

KWSE 20주년 홍보영상 상영을 통해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여성과학기술인들의 활동과 성과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한성옥 회장의 2014년 사업활동보고 및 2015년도 사업계획 등 회의 현황을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킹의 시간을 가지며 앞으로의 여성과학기술인의 활동 방향과 회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며 마무리했다.

KWSE 이사회

2회
일자: 2015년 3월 18일 (수) **장소:** 한국화학연구원 행정동 대회의실
주요안건
2015년 제1회 이사회 회의록 보고,
사업 진행사항 보고,
KWSE 홍보, 신규회원인준, 제11대 회장 선출 선거관리 위원회 구성,
KWSE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정

3회
일자: 2015년 5월 15일 (금) **장소:** 서울역
주요안건
2015년 제2회 이사회 회의록 보고,
사업 진행사항 보고, KWSE 홍보, 제11대 회장선거 진행사항, KWSE 사무국 이전, 네팔 지진피해 성금 모금, 2015년 100인 기부릴레이 모금 캠페인 참여 완주, 신규회원인준

회원동정

The Association of Korean Women Scientists and Engineers

2015. 07
KWSE NEWS

수상

국회의원
민 병 주

이화여자대학교 물리학과 창립 60주년 기념
자랑스러운 물리학과 동문상: 과학기술진흥부문 수상

지난 5월 20일 이화여대 물리학과 창립 60주년 기념식에서 자랑스러운 물리학과 동문상 과학기술진흥부문을 수상한 민병주 의원은 "여성연구원 출신으로서 더욱 활발한 과학진흥 활동과 국회활동으로 국가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법률소비자연맹 주최 국회의원 헌정대상 3년 연속 수상

지난 6월 29일 '제19대 제3차년도 의정활동 종합평가회 및 국회의원 헌정대상 시상식'에서 국회의원 헌정대상을 수상한 민병주 의원은 "3년 연속으로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돼 기쁘다. 다시 한 번 신뢰와 믿음을 주는 정치를 하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 행복을 위한 정책개발과 입법 활동에 매진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덕성여자대학교
교수
문 애 리

로레알-유네스코 여성생명과학상: 학술진흥상 수상

지난 6월 23일 '2015 한국 로레알-유네스코 여성생명과학상: 학술진흥상'을 수상한 문애리 교수는 "앞으로 국내 여성생명과학자들의 사회적 지위 제고와 연구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롤모델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애리 교수는 유방암 치료를 위한 바이오 타겟들을 발굴하고 유명학술지에 다수의 논문을 게재하는 등 국제적인 기술 경쟁력 확보에 기여했다.
기사출처: 아시아투데이 (2015. 06. 23)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책임연구원
부 하 령

2015년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 국제학술대회 '여성과학자상' 수상

지난 6월 25일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여성과학자상을 수상한 부하령 박사는 "과학계에서 보다 더 많은 여성과학자들이 활약하며, 가지고 계신 역량을 발휘하여 핵심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제 힘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라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원장
안 명 옥

두려움을 이기고 사명감으로 메르스와 24시간 사투를 벌이고 있는 안명옥 원장님을 회원 모두 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KWSE 회원인 국립중앙의료원 안명옥 원장은 메르스 환자들의 치료를 위해 한 달 넘게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위급상황 시 투입되는 에크모 팀을 구성하고 운영하며 메르스 첫 환자 치료에 매진하고 있는 안명옥 원장은 "첫 번째 환자 분을 살린다는 의미는, 우리는 어떤 분도 살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라고 강조하며, 어떤 어려움도 극복 할 수 있다는 다짐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사

- **손명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승진 (2015. 03. 01)
- **안설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책임연구원 승진 (2015. 03. 01)
- **최문정**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미래예측본부 선임연구위원 승진 (2015. 03. 16)
- **설아람**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연구위원 승진 (2015. 05. 13)

신규회원

- **강미애** ((주)야긴스텍)
- **권옥경**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김무웅**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김미랑**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김정희**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민세홍**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박묘현** (영남대학교)
- **박인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박주영** ((주)모아)
- **손미영**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오경진**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오수진** (국방과학연구소)
- **원주진** (동국대학교)
- **윤석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윤영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이다용**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이라미** (건국대학교)
- **이혜정** (한국한의학연구원)
- **임은경**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장은숙** (한중대학교)
- **전유정**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정지선** (한국표준과학연구원)
- **정해지** (국방과학연구소)
- **차예원**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
- **황동아**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종신회원

- **김남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김미소** (한국표준과학연구원)
- **김선정** (대구보건대학교)
- **김효정** (부산대학교)
- **서지연** (경북대학교)
- **오현진** (백석문화대학교)
- **유은아** (한국표준과학연구원)
- **유향숙**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이지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이현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정경숙**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최은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한국여성재단 '100인 기부릴레이' 참여

KWSE는 지난 2010년부터 한국여성재단이 주관하는 '100인 기부릴레이'에 매년 이끔이로 뛰고 있다. 100인 기부릴레이는 지난 2003년부터 시작한 나눔 캠페인으로서, 개인이나 단체 이끔이를 시작으로 먼저 기부한 주자가 다음 주자에게 바통을 넘기며 나눔을 이어가는데 30명 이상의 주자가 모이면 완주하게 된다. 조성된 기금으로는 성차별 해소와 평등문화 확산 등 '딸들에게 희망을' 주는 다양한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다. 금년에도 33명의 회원들이 기부에 참여한 덕분에 KWSE는 6회 연속으로 릴레이 완주에 성공했다.

릴레이 주자:
곽지혜, 김경숙, 김숙경, 김신애, 김정애, 김혜란, 김혜영, 김효정, 남길수, 명선하, 박선희, 부하령, 신윤숙, 안은영, 오여경, 윤혜온, 이빛나, 이선영, 이연승, 이희일, 임조령, 임형미, 장귀숙, 조은위, 주성진, 최은정, 최한나, 추장희, 황정아, 한미정, 한선화, 한성옥, 한태윤

이 뜻깊은 행사에 기꺼이 정성어린 나눔을 행하여 주신 회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2016년에도 많은 회원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네팔지진 피해 성금 모금

KWSE는 지난 4월 25일 발생한 네팔 대지진으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난민들에게 회원들로부터 모은 성금을 구세군자선냄비본부를 통해 전달했다.

기부자:
강문자, 강병련, 강주희, 강현주, 곽지혜, 김경숙, 김숙경, 김신애, 김영미, 김정선, 김정애, 김현옥, 명선하, 박선희, 박승옥, 백 란, 백혜자, 부하령, 서정균, 신용현, 신윤숙, 심숙이, 안설아, 안영숙, 안은영, 오여경, 윤은숙, 윤혜온, 이미혜, 이빛나, 이선영, 이연승, 이영숙, 이종교, 이향숙, 이화심, 임조령, 임현의, 임형미, 장귀숙, 정명애, 조경옥, 조혜선, 최선미, 최은정, 최지연, 최한나, 추장희, 하경자, 한미정, 한선화, 한성옥, 한태윤, 허미정

KWSE에서 2012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Smart Sister Program에 네팔 학생 및 여성과학기술인들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아시아·태평양 여성과학기술인 네트워크인 APNN에도 네팔이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어 네팔 여성과학기술인들과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다. 이렇게 가까운 이웃인 네팔에게 KWSE 회원들은 작은 정성을 전달하며 하루빨리 아픔을 딛고 다시 일어나기를 희망하였다.

네팔 국민들에게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주신 회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모아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2015년도 상반기(1월 ~ 6월) 기부자: **오세화** (초대, 제2대 회장) / **유향숙** (한국생명공학연구원)

KWSE에는 정성어린 마음으로 솔선하여 나눔을 행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 소중한 분들께 작은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꾸준한 정성과 관심을 보여주신 많은 회원분들에게 말로는 다 표현하기가 어렵지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